

研究論文

임진왜란의 국제정치학

- 일본의 조선분할요구와 명의 對조선 종주권 확보의 대립, 1592~1596 -

이 완 범*

I. 머리말	V. 명의 종주권 확보 노력과 조선의 강 화반대, 1593~1594
II. 한반도 분할의 역사적 기원	VI. 강화 결렬과 전쟁의 재발, 1596~ 1597
III. 강화회담의 시작과 할지의 초기 논의: 대동강이나 함경 평안도냐 1592년~1593년 초	VII. 맺음말: 16세기 분할안의 무산이유 와 역사적 의미
IV. 일본의 割地요구와 沈惟敬-고니시의 항복문서 조작: 반분선의 대립 1593~1596	

I.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일본은 2차에 걸쳐 조선을 침략했다. 수십만 이 전장에 투입된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의 국토는 황폐화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으며 정치·경제·문화·사회·사상 등 각 방면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정치학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이 전쟁으로 인해 조선은 전후기로 구분될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이 전쟁은 조선·명·일본 3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국제전이었으며 일본이 조선을 대규모로 침략하여 중국과 대결하였던 중요한 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을 역사적으로 조망한 많은 업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사적 조망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¹⁾ 특히 당시 일본의 조선에 대한 분할 기도는 한-중-일간의 이해가 얽혀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일본이 과연 어떤 선으로 분할하려 했으며 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사실을 밝혀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임진왜란의 국제정치는 한-중-일 외교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심에 강화회담이 있었다. 이 연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일본-중국 3국간의 미묘한 신경전을 보여주는 조선의 분할 논의를 강화회담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조망하여 사실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임진왜란 때인 1592년 6월 9일부터 1596년 9월 3일까지 명나라(조선은 초기에만 참여함)와 일본간의 강화회담이 열렸다. 복수의 외국간에 분할을 둘러싸고 흥정이 이루어진 것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이다. 당시 한-중-일 3국은 한반도 분할을 둘러싸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를 국제정치사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의 割地 제의에 대해 논하고 이에 대한 조선 조정의 반대와 명나라 沈惟敬의 수용 등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또한 명나라 조정의 반대와 이에 따른 명-일본간의 강화협상 결렬과정을 연대기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다.

1)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가 있으나 이도 한-중-일 3각관계를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권중현,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삼국(한-중-일)의 외교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사학과, 1975이 있으나 오래 전의 업적으로 학계에 소개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한편 李焜錫, 『壬辰戰亂史』, 전2권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67)은 전시외교를 기술하고, 기본 문헌을 모아놓은 역작인데, 1977년의 개정증보판은 전3권으로 되어 있는데 표4개가 첨가된 것 외에 큰 차이는 없다.

본 연구는 임진왜란시 강화회담에서 논의된 조선에 대한 일본의 분할안을 사실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사료에 의지하여 사실확인을 위주로 하는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을 채용하고자 한다. 30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이 문제에 관한 사실확인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므로 공간된 문서 등에 의존한 ‘역사적 고증’ 방법과 연대기적 서술(chronological description) - 서사적 방법(narrative method)이 가장 설득력 있고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들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종합하여 정설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당시 분할선이 어떤 선이었는지 정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사실규명이 요청된다. 사실규명이 목표이므로 사료에 의지하여 사실확인을 위주로 하는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을 채용하고자 한다. 과학적 방법의 동원은 우선 사실확인을 한 연후에 별도의 다른 연구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연구방법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문헌자료 중심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히 기술하는 동시에 그 일들 사이의 관계성을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역사적 접근법은 ‘사료의 분석과 비판을 통한 실증적 검토’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실증주의적 방법과는 다르다. 실증주의적인 ‘이론적 분석’(theoretical analysis)의 유용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철저한 자료수집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균형 있는 해석, 실증적인 분석과 연구를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작업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방법의 동원은 역사연구의 초보적 전제인 사실 확인을 한 연후에 별도의 다른 연구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분할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한반도 구상을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종이에 문자로 쓰여진 문헌에 의존한 문헌연구이다. 300여 년 전의 일이니 만치 인터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문제를 보고자 한다.

오늘 우리의 역사가 과거의 축적이라면 오래 전의 일일지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 줄 여지는 있다.²⁾ 따라서 3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국제정치사적 관점에서

2) 한반도 문제를 주변 열강 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와 연결시킨다면 흔히 결정론적이고宿命론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흐를 수 있다. 열강에 둘러싸인 약소국 한반도는 결국 열강의 식민지가

현재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축적을 통해 한반도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겪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논문이므로 연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적 관점에서도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교훈 발견이 본 연구의 주목적은 아니다. 엄밀하고 가치 중립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실규명이 주목적이며, 이에 기반하여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활용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말이다.

II. 한반도 분할의 역사적 기원

1945년 38선 획정에서부터 시작되어 1953년 휴전선으로 변형된 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남북 분할을 민족사와 연관해 본다면 그 연원이 매우 깊기 때문에 한반도 분할을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고대 한사군(漢四郡)설치(기원전 109년)나 고려 때 철령과 자비령 이북을 원나라가 직할지로 21년간(1270~1290) 지배한 것³⁾에서부터 분할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위의 예는 외세에 의해 실제로 점유된 경우이며, 단지 안으로 제시되었던 경우로는 7세기 중·후반에 당태종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溟水 이남은 신라가 다스리며 그 이북은 내가 다스리겠다”고 김춘추에게 제시한 예가 있다.⁴⁾

되거나 분할되던지, 아니면 특정한 하나의 배타적 외세에 의존적인 준독립국의 위치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통시대 중국의 조공국이나, 일본의 식민지, 혹은 제2차세계대전 직후 남북 각각 미국과 소련에 의존적인 독립 등이 그 예이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반도적 위치를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육교적 위치로 활용하여 오히려 잘 이용한다면 실질적 독립을 얻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전근대시대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실질적 독립이었으며, 현재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최강대국의 사이에서 실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황하문명권과 서구문명권의 교차라는 위치는 세계화시대 문명전달자와 변용자로서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다.

- 3) 이종만, 「조선의 분할안을 위요한 열강국의 외교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1973, 4 쪽
- 4) 이종국, 「신라 삼국 통일의 정치사적 재해석: 당태종의 남북 분할 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1985;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 한울 (2001), 720 쪽. 패수라 함은 고조선과 중국의 경계를 이르는 데 고조선 때의 패수는 청천강 압록강 遼西 지

위의 경우들은 모두 외세와 한민족간 분할지배의 실제와 구상인 경우인데, 한민족을 배제한 채 복수의 강대국간에 한반도 분할이 논의된 최초의 예는 임진왜란 때인 1592~1596년 명나라와 일본간의 강화회담 때이다 또한 19세기말 20세기초에도 강대국간의 분할 논의가 러시아와 일본간에 있었다.⁵⁾

한반도 분할 논의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별도 연구테마(모노그라프의 형태)로 심층적으로 연구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20세기 중반에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던 38선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축적되었지만, 16세기의 분할 논의에 대해서는 실현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윤웅상이 1991년 건국대학교 정치학과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임진왜란기 강화 교섭에 관한 연구: 조선 분할안을 중심으로」와 이종만이 1973년에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 「조선의 분할안을 圍繞한 열강국의 외교정책 연구」 등 두 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대표적인 예이다.⁶⁾ 그렇다면 16세기 분할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방의 大濶河라는 설이 분분하며, 삼국시대에 쓰인 패수는 예성강 아니면 대동강이라고 한다 735년 당나라가 정식으로 신라의 영유권을 공인한 이른바 ‘溟江 이남의 땅 에 나타난 패강은 지금의 대동강으로 추정된다.

- 5) 일례로 Richard Whelan의 *Drawing the Line: The Korean War, 1950-1953*,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0과 같이 한국전쟁을 다룬 책에서도 2장에 “The Russo-Japanese Rivalry in Northeast Asia”을 할애하면서 19세기와 20세기 라 일간의 경쟁을 논구하였으며 1903년 러시아의 39도선 제안이 언급되어 있다 *Ibid.*, p. 14. 따라서 구미 학계에서도 근대의 분할선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할선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 학계에서도 연구되는 측면이 있다.
- 6) 이외에 분할 논의와는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전란후의 평화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조망한 李啓煌, 『文祿・慶長の役と東アジア』, 臨川書店(1997)이 있다 이 책1頁에 의하면 이계항 교수는 임진왜란을 국제적 전쟁으로 파악하면서 1598년 이후 조선 명나라 일본간의 국제적 전후처리 과정(전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을 조선-일본간의 국교재개 교섭에 비중을 두고 살펴본다고 기술했다. 한편 명나라와 일본간의 강화교섭에 대해서는 상명대 金文子 교수의 「文祿・慶長期に於ける日明和議交渉と日本」, お茶の水女子大學 人間文化研究科 比較文化學專攻 博士學位論文, 1997이 독보적이다 이 논문은 그녀의 석사학위 논문 「豊臣政權の 講和交渉에 關한 一考察: 對馬그룹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사학과, 1989을 진전시킨 역작이다.

III. 강화회담의 시작과 할지의 초기 논의: 대동강이나 함경-평안도 나, 1592년~1593년 초

1. 조선과 일본의 강화 담판: 첫 강화 접촉은 조선과 일본간에 이루어졌다, 1592년 6월 9일

조선의 선조 임금은 1593년 3월 “저들(명나라 원군 인용자)이 비록 강화하자고 해도 우리의 도리에 있어서는 강화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화 반대의 입장을 명백히 했다.⁷⁾ 이런 상황에서 1592년 6월 9일 일본의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겐소(玄蘇, 외교승려)는 대동강 선상에서 이덕형 등과 회견하여 假道入明을 요구했으나 이덕형이 “만약 중국만을 침범하려고 하였다면 어찌 절강(浙江)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왔습니까. 이것은 실로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입니다. 명조는 바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 부모와 같은 나라이니, 죽어도 요구를 들어 줄 수 없습니다”라며 거부하자 적장은 강화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회담은 결렬되었다.⁸⁾

처음의 접촉은 명분 대결을 하다가 끝난 격이 되었다. 그렇지만 강화에 관한 첫 접촉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물론 당시 명군은 파병되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첫 접촉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논리가 먹혀 들어가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후 명나라와 접촉하려 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명나라와만 접촉하려 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조선의 강력한 강화반대 움직임을 간파하고 명나라와 계속 접촉하여 강화 회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 했으며 일정한 성과를 얻었던 것도 사실이다.⁹⁾ 명-일간의

7) 『宣祖實錄』, 卷36, 癸巳(1593年) 3月 己未(4일)日條 같은 날 기사에 의하면 일본군이 강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선조는 일본군과 명나라 군대가 모두 강화를 원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따라서 전세가 우리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전 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 김귀영(金貴榮)의 치계에 접한다.

8) 『宣祖實錄』, 卷27, 壬辰(1592年) 6月 丁酉(9일)日條 『鮮人の記せる豊太閤征韓戰記』, 朝鮮研究會(1912), 53-54쪽, 『鮮人史家の記せる豊太閤朝鮮役 文祿の卷』, 朝鮮研究會(1929), 98-99 쪽 맨 마지막 책에는 남명 조식 선생의 평가도 나와 있음.

9) 또한 일본은 명나라와 접촉하면서도 조선과 전혀 접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594년 4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의승장 사명당 유정과 가토타(加藤清正)와의 회동이

최초 교섭은 1592년 8월 말-9월 초였다.

2. 고니시와 沈惟敬의 접촉 시작: 평양강화회담에서 고니시의 대동강 분할 제의, 1592년 9월

16세기말에 명나라와 일본간에 분할이 논의되면서 강대국간의 분할논의가 처음 한반도에 등장했다.¹⁰⁾ 대동강변에서 전선이 형성되었을 때 열린 1592년 8월 29일¹¹⁾-9월 초 평양 강화회담에서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명 심유경(沈惟敬 參將¹²⁾)과 접촉했다

전선 지도부 중 최고위층이었던 전선 사령관 고니시가 참모급이었던 비교적 낮은 계급의 沈惟敬¹³⁾과 상대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격이 맞지 않았다. 그런데 명나

그것이다(내용은 후술함).

- 10) 임란중의 분할 논의에 대한 연구는 윤웅상의 논문 외에 다음의 것이 있다. 신복룡 『한국분단사 연구: 1943~1953』, 720쪽, 김영작, 「四溟堂과 加藤清正회담의 성과와 의의」, “四溟堂記念事業會(편), 『사명당 유정: 그 인간과 사상과 활동』, 지식산업사 (2000), 235쪽, 鄭燦生, 「임진왜란 중의 明日 講和 회담의 시말」, 四溟堂記念事業會(편), 『사명당 유정: 그 인간과 사상과 활동』, 지식산업사 (2000), 466쪽
- 11) 金文子, 「豊臣政權의 講和交渉에 關한 一考察: 對馬그룹을 中心으로」, 56쪽.
- 12) 2002년 7월 18일의 토론에서 권혁수 중국 동북사대 교수는 삼장이라함은 연락참모 정도의 계급인데, 그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 13) 沈惟敬은 중국 嘉興 사람으로 원래 시정의 무뢰배였었는데 일찍이 왜적에게 잡혀서 잠시동안 일본에 거주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 사정에 정통했다 혹은 부친이 일본에 내왕하면서 장사하여 일본사정에 밝았다는 설도 있음. 일본의 침공이 있자 沈惟敬은 자원했다하며 병부상서 石星의 추천을 받아 ‘京營添住遊擊’이라는 직함을 받고 조선에 왔다. 『明史』, 卷20 神宗本紀 萬曆 20年 8月 己酉, 7面 左에 의하면 명나라 황제가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將材를 천거하도록 각지방 督撫들에게 詔勅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전 嘉靖年間 왜구의 침입때 浙直 總督 胡宗憲의 票下에 있으면서 적정을 탐지하는 등 큰 공을 세운 沈惟敬이라는 자가 있어 절직 총독이 병부에 천거했는데 石星이 그를 조선에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吳慶元(編), 『小華外史續編』, 卷1, 24葉, 李光濤(編), 『朝鮮壬辰倭禍史料』 第5冊,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70), 2098쪽, 李光濤 『朝鮮「壬辰倭禍」研究』, 商務印書館 (1972), 64쪽 또한 『國權』에 의하면 石星이 조선에서의 왜군을 몰아내기 위한 묘책을 공모했는데, 많은 음모작 중에 遊說로서 왜의 허실을 탐정하여 입책하자는 沈惟敬의 안이 石星의 눈에 들어 그를 조선에 보내게 되었다는 설이 나온다. 『國權』, 卷76 神宗 萬曆 20年 8月 甲午; 황원구, 「<明史> 「朝鮮傳」 譯註 (II)」 『동방학지』 15 (1973), 245쪽 결론적으로 沈惟敬은 왜를 설득하기 위하여 과견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강화 회담을 수행함에 있어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는 않았다. 즉 명나라에서 일본측에 강화회담을 정식으로 제의하지

라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파병이 있기 전(이미 중국의 변방 수비대인 극동유격 史游와 參將 郭夢徵이 1천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1592년 6월 초에 의주에 주둔했으며 곧 이어 廣寧遊擊 王守官 부총병 祖承訓 등이 6월 17일 1,825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합세했다¹⁴⁾) 왜를 說諭해 보기 위해 沈惟敬을 偵探차¹⁵⁾ 파견했으므로 그가 강화 협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였다. 沈惟敬은 8월 18일 의주에 도착한 후 8월 25일 순안에 이르러 평양에 주둔해 있던 왜에 서찰을 보내 ‘조선이 왜에 대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와 같이 군사적인 침략을 하느냐’는 황제의 문책을 전달하니 고니시가 논의를 청하는 답서를 보내어 최초의 직접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9월 초(1일 혹은 8일) 회담에서 고니사 玄蘇는 조선 침략의 이유로 일본이 조선의 길을 빌려 봉공을 구하려 하는데 조선이 이를 가로막고 도리어 병사로써 항거하므로 이렇게 전쟁이 난 것이므로 이것은 왜의 죄가 아니라고(行長 玄蘇曰 弊邦欲假道朝鮮 以求封貢 而彼反集兵拒我 以致紛紜 此非我等之罪也)¹⁶⁾ 변명하여 假道入明이 명에 대한 정벌에 있지 않고 求封貢에 있다고 주장했다.¹⁷⁾ 이에 양측은 일본의 봉공요구를 명나라 조정에 알리는 데는 시일을 요하므로 50일간의 기한으로 휴전을 하되 平壤城外 10리를 경계로 하여 상호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沈惟敬은 求貢의 뜻을 표한 편지와 예물을 받아서 명황제와 협의차 北京으로 귀임하였다.

고니사는 沈惟敬에게 대동강 以東의 땅을 일본에게 귀속시키며 평양 以西는 조선에 귀속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天朝가 다행히 진군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갈 것이다. 대동강으로 경계를 삼아서 평양 서쪽은 모두 조선에 속하게 될 뿐이다”는 제안이었다.¹⁸⁾ 이 과정에서 고니사와 沈惟敬은

않았다는 것이다. 李焜錫, 『壬辰戰亂史』, 上,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67), 7쪽.

14) 『宣祖修正實錄』, 卷26, 壬辰(1592年) 6月 己丑(1일)日條, 『宣祖實錄』, 卷27, 壬辰(1592年) 6月 戊申(20일)日條 그런데 조승훈 軍이 평양성에 있던 왜군이 소수라는 말을 듣고 공에 욕심이 나서 공격했다가 대패했다. 『宣祖修正實錄』, 卷26, 壬辰(1592年) 7月 戊午(1일)日條 이 敗報에 크게 놀란 명나라는 원군파견을 급히 서둘렀다.

15) 李光濤, 『朝鮮「壬辰倭禍」研究』, 商務印書館 (1972), 64 쪽

16) 『宣廟中興誌』, 壬辰九月條, 李光濤, 『朝鮮「壬辰倭禍」研究』, 商務印書館 (1972), 65 쪽.

17) 권중현,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삼국(한·중·일)의 외교관계」, 32 쪽

18) 『明史』, 卷320, 列傳 第208, 外國 1, 朝鮮, 萬曆 20年 8月條 9面 右에는 “惟敬至平壤 執禮甚卑 行長給[諭]曰 天朝幸按兵不動 我不久當還 以大同江爲界 平壤以西 盡屬朝鮮耳” 이라고 되어 있다 「

밀약을 맺었다. 그 내용인 즉 평양을 분계하여 남동은 일본의 진영으로 서북은 중국(조선)의 진영으로 하며, 일본(과 중국)의 군사를 전라도에 보내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었다.¹⁹⁾ 확실한 분할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미 군사적 분계선은 실무적이나마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일본의 세력권 확보는 일차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沈惟敬은 황제에게 고니시 분할제의를 알렸다.

3. 가토의 조선 조정에 대한 함경-평안도 할지안 제시, 1592년 10월

한편 가토(加藤清正)는 1592년 10월 당시 성천에 있던 왕세자 광해군의 分朝(각주 참조)에 鏡城관관 李弘業을 통해 일본에서 포로로 잡은 두 왕자(임해군과 순화군; 피란가 있던 회령에서 아전 鞠景仁의 배반으로 일본군에 사로잡힘) 등이 작성한 서신을 보냈다. 이홍업의 말에 의하면 일본 “평조의(平調義)²⁰⁾는 ‘조선이

<明史> 『朝鮮傳』(II) 『동방학지』 15 (1973), 205 쪽에 번역본이 나와 있으며 246 쪽 각주 545 에 원문의 給자와 『明史紀事本末』의 詭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되고 있다. 또한 『豊太閤外征新史』에 의하면 평양 왕성(京城) 일대를 조선에 돌려주지 않고 天朝(명)에 교부하겠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宣祖實錄』, 卷32, 壬辰(1592年) 9月 乙丑(8일) 日條에 강화교섭에 대한 서술이 있는데 분할에 대한 부분은 없다. 沈惟敬이 할지(割地)문제를 먼저 제안했다는 설도 있다. 루이스 호로위츠 [Lewis Horowitz], 『日本史』; 권중현,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삼국 한 중 일의 외교관계」, 34 쪽. “유격이라고 칭해지는 지나의 장군이 와서 고시니와 화평을 구하는 회견을 신청했다 그는 고려의 일부를 일본에 할여하고 關白과 화평우호를 결하자는 말을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2 개월 간의 유예를 얻기 위하여 양군이 휴전을 하자고 요청하였다.” “沈惟敬은 고니시에게 지나인은 고려인에 대하여 옛날부터 대단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고려로부터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호기로 고려왕에 어떤 성에 가두어 놓았다. 만일 關白이 원하면 왕을 일본에 보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구절은 외국인인 저술한 『日本史』를 인용한 편역서 松田毅一-川崎桃太 (共編譯), 『秀吉と文祿の役』, 中央公論社 (1974), 118쪽에 나오는 것으로 그 근거가 의심스러우며 과연 이런 말을 했을지 의심스럽다.

- 19) 1593년 11월 15일 고니시가 沈惟敬에게 보낸 서신 중에 “작년에 평양의 서북을 분계하여 이로써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았지만 조선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을 귀하는 어떻게 제지하였나이까?..... 귀하와 서로 약속하였으므로 군사를 전라도에 보내지 않았으므로 오늘까지 모두 안온한 바 이것을 어찌 보시나이까”라는 구절이 있다. 李焜錫, 『壬辰戰亂史』, 上,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67), 877 쪽
- 20) 『선조실록』, 6, 25년 7월 25년 12월 민족문화추진회(1987), 215 쪽에는 원문 그대로 平調義로 나오는데 비해 『리조실록』, 176 (선조 5), 사회과학출판사 (1984), 415 쪽에는 평조신으로 고쳐서 나온다. 따라서 북의 학자들은 평조이가 아닌 아나가와 시게노부 柳川調信으로 간주했다는 말인데 이것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平調義라는 인명은 柳川調信과 전임 ‘대마도주 宗義調’를 혼동

땅을 떼어 강화(講和)하면 왕자도 되돌려 보내고 군사도 파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割地 講和를 하면 두 왕자를 석방하고 철수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갇혀 있는 北兵使 한국함과 南兵使 이영의 서신 중 일본의 가토가 전한 말에 의하면 “귀국의 군현(郡縣)은 거의 일본의 소유가 되었으나 대왕이 다시 이웃나라로서의 맹약을 맺으려 한다면 그중 한두 개 도(道)를 귀국에 돌려줄 것은 물론 전처럼 신의를 지킬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두 왕자 등의 편지에도 “2~3 도 道로 경계를 삼아서 국경을 고루 나누고 군사를 파할 것은 물론 양국의 강화를 논하고자 한다”(二三道爲界平分境土罷兵論兩國之友 和의 오식 也)고 나와 있다. 가토의 편지에 의하면 “다행히 지금 나에게 붙어 항복하면 내가 인차 일본의 關白(관백 간빠쿠)이라는 별칭직 벼슬을 가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지칭함, 인용자 첨가)에게 아뢰어 나라의 고을을 나누어주고 父子가 함께 편히 살도록 하겠습니다”(幸今附子降從則已達日本關白公分與於國邑而父子相共須今安在也)라는 것이었다.²¹⁾ 항복하면 한두 개 내지는 세 개의 도만 돌려준다는 말이었는데, 당시 조선이 항복을 운위한 정도로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반영한 것이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을 지라도 할지(割地)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가 1~2, 2~3 개 道라는 범위는 조선이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의주에 파견했던 선조의 상황을 감안하여 주로 평안도를 염두에 두고 이에 함경도 정도를 첨가한 제안이었을 것이다.

일찍부터 일본은 조선에 직접 분할을 제안했으나 조선이 위기에 처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명에 기대면서 강화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주로 명나라와 논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조선을 배제하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명의 조공국으로서 조선 조정은 종주국인 명나라가 조선의 할지(割地)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기대하고 있었다. 물론 명나라 조정도 할지(割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은 너무 긴박했으므로 전선의 명나라 장수들 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했거나 두 사람의 이름을 중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宗義調는 이미 죽었으며 이 시점에서 대마도 주는 宗義智(소우요시토시)가 代理했다. 아가와는 宗義智의 家老이다

21) 『宣祖實錄』, 卷31, 壬辰(1592年) 10月 乙巳(19일)日條, 황원규, <明史> 「朝鮮傳」 譯註(II) 『동방학지』 15 (1973), 252쪽의 주 564. 남과 북의 서로 다른 국역본은 다음과 같다 『선조실록』 6, 25년 7월~25년 12월, 214~216쪽, 『리조실록』 176 (선조 5), 415~417 쪽

4. 중국 조정의 할지 반대와 주전론 득세: 李如松의 파견, 1592년 12월

명 조정에서는 “왜적은 姦詐하여 믿을 수 없으니 宋應昌 등으로 進兵하게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²²⁾ 沈惟敬의 대일강화 교섭에 대해 명 조정 내에서도 비판이 심각해져 沈惟敬은 억류되기까지 했다.²³⁾ 대일강화교섭에서 타협적인 태도(주화론)는 후퇴하고 강경책(주전론)이 득세하면서²⁴⁾ 1592년 12월 25일 명의 제독 李如松이 이끄는 5만 대군의 조선파병이 이루어졌다(11월 26일 沈惟敬은 귀임하여 평양성에서 회담 재개). 평양에서의 강화교섭은 沈惟敬의 개인적인 견해로 이루어진 성격이 짙다. 또한 『宣祖實錄』 卷32, 壬辰(1592)年 11月 癸酉日條에 기술된 바에 의하면 沈惟敬은 선조에게 50일의 기한으로 휴전한 것은 大援兵이 와서 일거에 탕평할 수 있는 시일을 얻기 위함이라 하였으며, 대마도 宗씨의 『朝鮮陣記』에도 명나라가 그 대군의 파병 움직임을 숨기면서 비밀리에 기습을 노렸던 일종의 지연작전이라고 서술되어 있다.²⁵⁾ 李如松이 沈惟敬의 대동강 以東 할지설에 대해 “심유경(沈惟敬)이 왜노와 강화하고 대동강(大同江) 이동을 일본에 속하게 하려는데 그렇게 되면 국왕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며 화를 냈다고 하며²⁶⁾ 그를 참수하려고까지 하였다.²⁷⁾ 또한 宋應昌은 “유격(遊擊) 심유경(沈惟敬)이 전에 왜의 진영에 갔을 때 일본군은 ‘평양을 중국에 주지 조선에 주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큰소

22) 『明史』, 卷320, 列傳 第208, 外國 1, 朝鮮, 萬曆 20年 8月條, 9面 右 “惟敬以聞廷議 倭詐未可信乃趣應昌等進兵.”

23) 명의 宋應昌은 沈惟敬에 의해 군정보가 새어나갈 것을 우려하여 1592년 11월 말경부터 1593년 3월까지 그를 요동에 억류시켰다.

24) 鄭樑生, 『明-日關係史の研究』, 雄山閣(1985), 507쪽.

25) 金文子, 「豊臣政權の講和交渉에 관한 一考察 對馬그룹을 中心으로」, 28~29쪽 또한 일본의 강화론자 고니시와 일본과 조선사이에 끼어 입장이 난처했던 대마도주 宗義智(小西行長の 사위)의 개인적인 의사가 결합되어 강화회담이 이루어졌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윤웅상, 「임진왜란기 강화 교섭에 관한 연구: 조선 분할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1991, 20쪽 26쪽

26) 『宣祖實錄』, 卷33, 壬辰(1592)年 12月 戊戌(12일)日條, 北島万次(Kitashima Manji), 『豊臣秀吉の朝鮮侵略』, 日本歴史學會(編), 吉川弘文館(1995), 140쪽

27) 『明史』, 卷238 列傳 第126 李成梁傳 李如松, 7面 右 한편 李如松의 고조 이영은 원래 조선 理山(현재 평북 위원군)사람이었는데 명에 內附해서 鐵領衛 指揮僉使가 되었다고 한다 이에 李如松의 부친인 이성량은 선조의 고국인 조선을 위해 특별히 힘써 노력하라는 서찰을 보냈다고 한다.

리쳤다”면서 宋應昌은 “대체로 평양은 본디 조선의 토지인데, 중국이 바야흐로 구원하면서 어찌 다른 나라의 위급함을 틈타 남의 땅을 빼앗겠습니까. 결코 그런 이치는 없다”고 말했다²⁸⁾ 한편 이조판서 이산보(李山甫)가 심유격의 대동강(大同江) 강화설에 대해 李如松과 자신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선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李如松 제독은 沈惟敬의 일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자신이 심유격에게 말하기를 “만약 저 왜적들이 모든 조선 지방을 양여(讓與) 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강화(講和)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혹시라도 조선의 1현(縣), 1보(步)의 땅이라도 점거하고 있으면 강화는 불가하다” 하였는데, “沈惟敬이 재삼 왕복하면서 마침내 대동강(大同江)으로 경계를 삼았고 점차 양보할 것이라 하니, 나는 그의 의사(意思)는 믿지 않는다”고 평가했다²⁹⁾ 이 대목에서 대동강 할지는 대동강 이동을 중국에게 준다는 일종의 명-일간 야합안이며 조선배제안이고, 비교적 고위층이었던 宋應昌-李如松의 견해와는 다른 비교적 낮은 계급의 沈惟敬의 독단적인 협상 안임을 알 수 있다.

5. 일본군의 평양 패배와 명군의 벽제 패배: 전선의 교착과 강화분위기의 조성, 1593년 초

1593년 1월 7일 조명 연합군이 평양을 회복하고 1월 16일 고니시는 한성으로 歸陣했다. 1월 26~27일 명군은 벽제관에서 일본군에 패배했으나 2월 12일 권율의 조선군이 행주에서 일본군을 패배시켜 밀고 밀리는 접전이 이루어졌다. 식량 보급 등에 문제가 생긴 일본군 내부에서 철수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도요토미는 4~5월 경 자신이 직접 출병할 것인데 그때까지 견디기가 어렵다고 판단다면 해변 가까이 있는 城塞로 후퇴하고 항전하라는 퇴각명령을 3월 10~11일 경 전달했고³⁰⁾ 적극적인 강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³¹⁾ 평양대첩후 명군은 결전전략을 견지했으나 벽제대패후 남진을 중단하고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후퇴한 후 강화를 추구하

28) 『宣祖實錄』, 卷33, 壬辰(1592年) 12月 癸亥(17日) 日條

29) 『宣祖實錄』, 卷33, 壬辰(1592年) 12月 癸亥(17日) 日條

30) 松田毅一·川崎桃太(共編譯), 『秀吉と文祿の役』, 中央公論社(1974), 134쪽.

31) 철군명령은 이미 3월 10일경에 한성에 도착했으나 고니시는 이를 감추고 명과의 강화 교섭에서 일본군의 양보안으로 제시했다.

게 되어 양국은 모두 강화에 나서게 되었다.³²⁾

IV. 일본의 割地요구와 沈惟敬-고니시의 항복문서 조작: 반분선의 대두, 1593~1596

1. 강화회담의 개시, 1593년 2월~3월

1593년 2월 15일 안변에서 宋應昌의 지시로 이루어진 명 參奉(삼장) 馮仲纒과 카토 사이의 회담에서 명나라는 조선왕자의 송환과 철군의사를 타진했다. 일본군은 조선의 할지(割地) 문제를 논의하였다.³³⁾ 선조는 馮仲纒이 강화에 임하면서 조선의 향도장 최우(崔遇)를 사신으로 데리고 간 사실에 분개하면서 “적츄(賊酋 카토, 인용자 첨가)는 땅을 나누고 할지, 割地 인질을 교환하지는 말까지 하였으니 국가의 수치가 배가 되었다”고 말했다.³⁴⁾ 선조의 입장에서는 할지(割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선조는 심지어 조선 사람으로 강화를 논하는 자를 효수하라고 유성룡에게 下諭했다.³⁵⁾ 조선의 조정은 분할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으며, 이러한 메시지가 일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결국 일본의 할지 요구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³⁶⁾

서울 남방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의 선전 등을 배경으로 하여 왜는 1593년 3월 초에 용산에 있던 조선수군의 舟船에 서찰을 보내 강화재개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 서찰은 김천일장군이 都體察使 유성룡에게 보내니 명장 查大受와 李如松을 거쳐 송경략에게 전해졌다. 강화를 추구했던 송경략은 명나라의 정세를 왜에게 유출한다는 이유로 요동에 억류되었던 沈惟敬을 다시 강화에 나서게 했다. 조선수군의 호위를 받으며 한성 근처 용산에 도착한 沈惟敬은 고니시·겐소·카토 등과

32) 명나라는 초기의 강화론에서 李如松의 과병으로 강경론으로 전환한 뒤, 벽제관에서의 패배 후 다시 강화론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33) 池内宏, 『文祿慶長の役』, 別編第一, 東洋文庫(1936), 383~384 쪽

34) 『宣祖實錄』, 卷36, 癸巳(1593年) 3月 庚午(15일) 日條

35) 『宣祖實錄』, 卷36, 癸巳(1593年) 3月 辛未(16일) 日條

36) 권중현,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삼국(한·중·일)의 외교관계」, 40 쪽

1593년 3월 15일 만났다. 宋應昌이 沈惟敬을 통해 왜에 “만약 잘못을 뉘우치고 점령한 조선국토를 모두 돌려주고 아울러 兩王子와 배신을 석방하고 관백에게 보고하여 사죄문을 올리게 되면 본부에 즉시 奏題하여 관백을 일본국왕에 봉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誅滅하겠다”고 말했다.³⁷⁾ 이에 대해 일본군은 자신들은 老關白에 의해 강제로 고려에 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화평을 성립시켜 돌아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沈惟敬이 먼저 2명의 사절을 관백에게 파견하여 화평을乞하고 곧이어 명 황제의 칙사를 도일시켜 종래 조·일간 무역의 양보다 상회하는 규모로 명·일의 무역을 재개하고 조선으로부터 철병하도록 관백을 설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沈惟敬은 3월 24일 의주로 돌아와 宋應昌에게 전후사를 보고했는데, 송경략은 沈惟敬에게 일본으로 가서 관백의 항복문서(항서)를 받아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 항서를 받은 후라야 上奏하여 관백의 왕·책봉과 進貢이 허락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³⁸⁾

2. 용산회담, 1593년 4월

4월 8일 용산의 선상에서 다시 만난 양측은 회담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고니시는 한강이남을 일본 영역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일본은 서울 이북 반환과 경기도 죽산(지금의 안성시 남동부의 면·충청도 충주 이남 분할을 교환하려 했으며³⁹⁾ 결국 4월 8일 일본군의 한성철수, 명군의 철수, 質子(인질)의 교환, 충주 죽산 부근에서 두 왕자를 석방할 것, 조공⁴⁰⁾등과 함께 죽산·충주 이남의 할지(割地)

37) 宋應昌, 『經畧復國要編』, 卷七, 宣諭平行長條 萬曆 21年 3月 初8日字

38) 『宣祖實錄』, 卷37, 癸巳(1593年) 4月 乙酉(1일) 日條

39)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中, 吉川弘文館 (1969), 174~175쪽, 277쪽.

40) 『宣祖實錄』, 卷37, 癸巳(1593年) 4月 乙酉(1일) 日條에 의하면 4월 1일 經畧(오늘날의 장관 정치 위원을 뜻함; 金奉鉉, 『秀吉의朝鮮侵略と義兵鬭爭』, 彩流社 1995, 257 쪽) 宋應昌은 일본이 조공하는 대가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4월 8일 왕자와 대신들을 풀어주고 즉시 철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宋應昌은 그의 관원을 철수하는 일본군과 함께 파견하여 도요토미의 항복문서를 받아 올 것이라 전했다. 도요토미를 일본왕으로 봉하고 寧波를 통해 조공하게 될 것이라고 참가했다. 일본은 평양 전투에서의 패배에 겁먹어 진심으로 강화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중국의 자기중심적인 착오인 것이다. 또한 같은 일자의 기사에 의하면 沈惟敬이 의주(義州)

가 밀약되었다는 설이 있다.⁴¹⁾ 그런데 이후 일본군이 죽산-충주까지 철수하지 않고 남해안까지 철수(5월 초)하고, 후일 沈惟敬이 할지밀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점⁴²⁾ 등으로 미루어 할지 밀약이 성립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할지 밀약 조항은 후일 명분 없이 한성 철수를 도요토미에게 청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왜장 石田三成이 도요토미에게 보내는 4월 17일자 보고문⁴³⁾ 중에 임의로 넣은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⁴⁴⁾ 일본군은 밀약에 따른 인질(사절) 2인(謝用澤 徐一貫⁴⁵⁾)이 도착하여 안전한 철수를 보장받자 4월 19일 한강을 건너 완전히 철퇴하였다.⁴⁶⁾

로부터 와서 가산의 촌사(村舍)에 머물렀는데 선조가 만나보려 하였으나 沈惟敬은 설복(褻服)을 입고 있다는 것으로 사양하였다. 선조가 도승지 심희수(沈喜壽)를 심 유격에게 보내어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沈惟敬은 「지금 진공(進貢)하겠다는 것은 사세(事勢)의 급박함에서 나온 것이니,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했다. 이에 다시 병조 참판 심충겸(沈忠謙)을 보내어 접대하게 하였는데 沈惟敬은 웃으면서 “평양 이동(以東)의 지역을 수복한 공은 제독에게 있고 평양 이서(以西) 지역을 보존한 공은 나에게도 있다”고 하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세력을 나누어 보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언사라고 할 수 있다. 황원구, 「<明史> 「朝鮮傳」 譯註 (II)」 『동방학지』 15 (1973), 253~254쪽의 주 570. 4월 8일에 열린 회담까지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고 회담은 무산되었다는 설도 있다.

- 41) 명나라 宋應昌이 지은 『經畧復國要編』, 卷八, 與李提督書 四月 二十一日字 기사와 檄禮曹判書尹根壽 四月 二十五日字 기사에 일본이 죽산-충주 등지에서 왕자와 배신을 송출하겠다고 나와 있다. 『壬辰之役史料匯輯』, 上,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出版(1990), 658 쪽 663 쪽 그런 맥락에서 명나라 宋應昌도 이 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다.
- 42) 『宣祖實錄』, 卷62, 乙未(1595年) 4月 庚戌(8일) 日條
- 43) 松田毅一·川崎桃太 (共編譯), 『秀吉と文祿の役』, 中央公論社 (1974), 185쪽.
- 44) 권중현,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삼국(한·중·일)의 외교관계」, 43~44쪽.
- 45) 권중현,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삼국(한·중·일)의 외교관계」, 44 쪽에 의하면 이러한 사절이 송경략의 사절이고 명조의 사절은 아니라고 주장된다.
- 46) 강화교섭을 마친 후인 4월 18일 일본군이 철수하자 李如松은 宋應昌의 명령이라며 추격을 단행하지 않았으며 조선군 영관들의 추격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李如松 등은 “우리로서는 왕경(王京)이 이미 수복되어 중국의 할 일도 이미 정해졌으니, 마땅히 한강(漢江)을 지키면서 형세를 살펴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宣祖實錄』, 卷38, 癸巳(1593年) 5月 癸亥(10일) 日條 권 율은 파주에서 한성에 입성하기 위해 한강을 도강하려 하였으나 李如松은 이를 듣고 노량진에서 津船을 회수하고 조선 군사의 행동을 계속 억제하였으며 李如松에게 추격을 요청하던 都體察使에게는 추격을 커녕 적의 出城 일시까지도 거짓말하였다. 윤용상 「임진왜란기 강화 교섭에 관한 연구: 조선 분할안을 중심으로」, 15 쪽 24 쪽 李如松은 송경략이 추격을 금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만일 추격한다 하더라도 明使와 더불어 조선의 두 왕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하여 추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한강변에서 왜병을 공격하던 조선군 巡

3. 강화 초안마련과 도요토미의 7개조: 4도 할지안, 1593년 5월 - 6월

용산에서의 강화회담 후 분위기는 무르익어 1593년 5월 1일 강화교섭의 초안은 마련되었으며 명·일 양측은 각각 사신을 파견했다. 조선은 배제되고 명·일간에 절충이 이루어졌다.⁴⁷⁾ 이는 이미 1592년 10월 확인된 바와 같이 조선의 조정에서 할지안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배제당했다고 조선의 조정에서 할지안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다.

沈惟敬은 1593년 5월 8일 고니시 등과 함께 부산포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했으며 5월 15일 나고야에 도착한 후 23일 도요토미를 접견하여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이는 宋應昌에 의해서 파견된 明使를 명조의 정식사절로 간주했음을 뜻한다. 할지안에 대해 이미 보고 받았던 도요토미는 고니시에게 조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며 칭찬과 함께 많은 은과 봉록을 더하여 주었다.⁴⁸⁾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사절 도착후 1달 반 정도 지난 후인 1593년 6월 28일야사 비로소 明日간 분할안이 포함된 문서를 名護屋(나고야)에서 明 사절에 정식으로 제출하였다. 사절이 나고야를 떠나려 할 때였다.⁴⁹⁾ 일본은 강화 조

邊使 이빈 장군을 강가에 억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宣祖實錄』, 卷38, 癸巳(1593年) 5月 丙辰(3일)日條 그러나 일본은 2 왕자와 배신의 송환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宋應昌은 고니시에게 우롱을 당한 격이 되었다. 李燾錫 『壬辰戰亂史』, 上, 749 쪽 우리 민족의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외세간의 강화였기 때문에 우리의 추격은 제한되었던 것이다. 『明神宗實錄』, 卷255 萬曆20年 12月 己亥(13日)日條 4741 面이 면수는 대만 중앙연구원역사어언연구소에서 1966~1968년에 편집 간행한 실록의 페이지 수이다. 이하 같음에 “宋應昌이 沈惟敬의 말을 전하기를 왜적 두목은 장차 평양·서울 일대를 조선이 아닌 명에게 반환하기를 원한다”(倭賊頭目有願平壤王京一帶還天朝, 不與朝鮮)고 나와 있다. 鄭樑生, 『明日關係史の研究』, 雄山閣(1985), 505 쪽 따라서 명나라 조정에서도 할지문제에 대해 일찍부터 인지했을 것(물론 4도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몰랐겠지만, 후술함)으로 추측된다 또한 강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조선의 참여를 막고 명나라와 교섭하여 조선의 일부를 할양 받으려는 일본의 인식을 이 대목에서 간파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명군의 역할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명은 실제전투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조선의 혼란스러운 국면 진정과 임진·계사·갑자년의 기근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최영희, 「임진왜란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남명학연구』 제7권 1호 (1997), 7~9쪽.

47) 北島万次(Kitashima Manji), 『豊臣秀吉の朝鮮侵略』, 日本歴史學會(編) 吉川弘文館(1995), 145 쪽.

48) 松田毅一·川崎桃太(共編譯), 『秀吉と文祿の役』, 中央公論社(1974), 138쪽.

49) 양재숙,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었다』, 가람기획(2001), 285 쪽. 한명기 교수는 이렇게 ‘이긴 전쟁’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진 전쟁이라고 패배의식을 가지지 말고 ‘상처받은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냉철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토가 초토화되었으며 많은

건 7개조(媾和約款, 소위 大明日本和平相定條條 50)라 함) 중 제4조에서 조선 8도 중 남부 4도를 일본에 할양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⁵¹⁾ 이 조항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없으나 “명나라와 八道를 분할하여 한성(國城) 과 四道를 조선국왕에게 돌려보낼 것”(對大明割分八道 以四道并國城 可還朝鮮國王)이라고 나와 있다.⁵²⁾ 4도는 함경, 평안, 황해, 강원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4도인 경기, 충청, 전라, 경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일본이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은 명에게 割地하라는 노골적인 요구는 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다고 할 수도 있다. 7월 22일 두 왕자는 명나라 사신과 동행하여 소환시켰다. 나머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에는 “4도를 이미 돌려보냈으므로 조선 왕자 대신 한 두 명을 인질(볼모)로 하여 바다를 건너 보내랴(왕자와 대신의 인질)고 나와 있으며 제6조에는 조선 왕자 2인을 沈惟敬 편에 돌려보낼 것(두 왕자 放還)이 기술되었다.⁵³⁾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으므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약자의 콤플렉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한명기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 『기아자동차』(2002년 11월), 27쪽

- 50) “毛利家文書”와 黒川眞道(編), 『朝鮮征伐記』, 一; 國史研究會(1916) 335쪽, 『續善隣國寶記』(貫正正之, 『豊田政權の海外侵略と朝鮮義兵研究』, 青木書店(1996), 49쪽)에는 ‘大明與日本和平相定條條’라고, 小瀬甫庵, 『太閤記』, 桑田忠親(校訂), 下, 岩波書店(1944), 167쪽에는 ‘大明へ被遣御一書’라고 제목이 나오는데 내용도 약간씩 다르다. 오세 호안(1564~1649)의 『太閤記』는 1625년에 22권으로 간행되었는데 도요토미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 전기로 이후 그에 대한 모든 서적의 전거가 되었다. 설성경·최문정·권혁래, 「임진왜란 관련 한일 역사서사문학의 성격: <임진록> 과 <태합기(太閤記)> · <조선정벌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10권 1호(2002년 6월), 149쪽.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中, 吉川弘文館(1969), 271~274쪽에 각 판본에 나타난 상이점을 상세하게 비교했다. 비교적 대중적인 역사서인 片野次雄, 『李舜臣と秀吉』, 誠文堂新光社(1983), 211~212쪽에 뒤 문서에 기초한 다소 변형된 자료가 인용되므로 일본학계에서는 뒤 제목을 정보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한 문헌은 『文祿慶長朝鮮役』, 博聞社(1894), 87~88쪽
- 51) 甫庵太閤, 『秀吉の朝鮮經略』(노계현, 『한국외교사연구』, 갑인출판사 1983, 155쪽); 佐島顯子, 「壬辰倭亂講和の破綻をめぐって」 『年譜朝鮮學』 第4號, 福岡: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1994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48쪽.
- 52) 제4조의 위 조문 앞에 “조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不顧朝鮮之逆意)라는 수식이 있다. 그렇다면 조선의 割地 반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 된다.
- 53) 小瀬甫庵, 『太閤記』, 桑田忠親(校訂), 下, 岩波書店(1944), 167~168쪽. 이 사료는 후세대의 기록

그 이외의 각조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명황제의 현녀를 일본의 后妃로 맞을 것(대명황녀의 황비책봉),’ 제2조 ‘명나라와 일본간의 ‘公許貿易船(勘合; 조공 형식을 띤 합법적 제한무역⁵⁴)이 끊어졌는 바 관선과 상선이 서로 내왕케 할 것(대명과의 우호통상),’ 제3조 ‘대명과 일본이 通好에 변경이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양국 전권대신이 서로 서사를 교환할 것(양국대신들의 선서교환),’ 제7조 ‘조선 국왕의 權臣이 누세에 걸쳐서 위만치 않을 것을 誓詞로 쓸 것(조선대신의 誓詞捧呈).’⁵⁵)

도요토미는 7개조에 대한 회답이 도착할 때까지 정전을 6월 28일에 명했으나 바로 이날 일본군은 진주성을 포위하고 있었으며 29일 이 성을 함락시켰다. 이는 명나라 사절과 같이 왔던 고니시를 먼저 귀국시켜 진주성 공격에 임하게 한 日軍의 주도면밀한 행동이었다. 조선⁴도 할지의 실질적 확보와 前年の 패배를 설욕하기 위한 도요토미의 이러한 계략으로 인해 강화에만 의지했던 宋應昌은 충격을 받았다. 李如松은 일본의 納款使로 명나라로 들어가려는 일행 대표 小西飛(고니시의 부하로 본명은 內藤忠俊, 중국과 조선에서는 小西飛로 칭해짐)에게 전라도를 치고 자 함에 대해 힐책하며 7월 8일 강화파기의 뜻마저 비추었고⁵⁶) 명나라 조정의 강화논의 와중에도 이 사건은 일본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으로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54) 李進熙·姜在彦, 『日朝交流史』, 有斐閣 (1995), 112쪽, 이진희·강재언, 김익한·김동명 (역), 『한일교류사』, 학고재 (1998), 128 쪽
- 55) 李燭錫, 『壬辰戰亂史』, 上,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67), 875~876쪽. 이 조항들의 중심은 역시 4조 割地에 표현된 ‘영토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李 차세계대전 패전 이전 일본에서는 勘合무역 부활 요구(명과의 무역을 재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설)가 제일 중요한 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도요토미의 명 정복 후 중국 寧波로 이주하려고 했던 점을 들어 이러한 ‘일 명 감합무역 부흥 요구설’이 정설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요토미의 명나라 정복이 실현 불가능했던 것을 알게 된 이후 감합무역 부활 요구는 강화의 한 조건으로 추가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널리 퍼진 현재는 이 견해를 정설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으며 교과서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李進熙·姜在彦, 『日朝交流史』, 114쪽, 김문자, 「일본인과 임진왜란,」 『祥明史學』 6 (1998년 12월), 123·124, 132·133쪽. 한편 『黑田家譜 朝鮮陣記』, 中이 재인용된 北島万次, 『朝鮮日記-高麗日記 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 そしえて (1982), 238~239 쪽에는 李 조로 되어 있다. 마지막 자료는 정유재란때 중군의승이었던 케이넨(慶念, 1536~1611)의 와카(和歌) 일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창기, 「慶念의 『朝鮮日記』에 나타난 私的세계와 와카(和歌)의 서정성」 『일본연구』 제12호 (1997), 147~164 쪽 참조
- 56) 『宣祖實錄』, 卷40, 癸巳(1593年) 7月 庚午(18일)日條, 『선조실록』, 9, 26년 7월-26년 9월 71~72 쪽

도요토미의 안이 나오기 전까지 일본의 안은 최고위층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인식도 가능했지만 이제 그의 안이 문서화됨으로써 이러한 우려는 불식되었다.

4. 沈惟敬의 7개조 은폐와 고니시와의 항표 조작, 1593년 12월

그런데 위 7개 조항은 명나라 황제에게 내어놓기에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고압적인 것이었으며 중화질서의 맥락에서 보면 허무맹랑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沈惟敬은 송경략에게 7개조를 말하지 못하였으며 小西飛도 송경략에게 다만 封貢만을 청하였고 沈惟敬에 대한 송경략의 명령이었던 항서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이후 명 조에서의 논의에 어려움이 예견되었다. 일본의 納款使 일행은 1593년 9월 6일 평양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 즈음 조선의 사은사가 북경에 있었다. 명의 병부상서 石星은 사은사 정사인 정철(인성부군)에게 조선의 사정을 물은 후 명 신종에게 종용해 도요토미의 降表(항복문서) 없이는 納款사 일행을 북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동 수안과 경략에게 지시하게 하였다. ‘항표 없이는 책봉 없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던 것이었다. 宋應昌은 譚宗仁을 특사로 고니시에게 파견해 對馬島로의 철병과 도요토미의 항표를 요구했다. 고니시에게 “도요토미의 항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봉공을 허락받지 못할 것”을 통고하였던 것이다. 고니시는 沈惟敬에게 1593년 11월 15일 서찰을 보내 “지난 해 평양을 서북으로 경계를 그었으므로 왜인은 경계를 넘지 않았는데, 조선은 경계를 넘어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沈惟敬과 약속한 바에 따라 “전라도에 출병하지 않아 오늘까지 安穩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대마도로의 철수 요구에 대해 만약 중국의 사신이 온다면 일본으로 철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譚宗仁을 진중에 머물게 하고 표문 제출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沈惟敬에게 왜영으로 오라고 제안했다.⁵⁷⁾

1593년 12월 24일 웅천에서 양인은 만났다.⁵⁸⁾ 沈惟敬은 명나라 조정에서는 화평교섭에 있어서 일체를 승복하는 관백의 친서를 요구하는데 小西飛는 그것을 지

57) 『宣祖實錄』, 卷45, 癸巳(1593年) 閏11月 甲申(4일)日條, 『선조실록』, 10, 26년 10월-26년 윤11월 167~168 쪽

58)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中, 吉川弘文館(1969), 185 쪽

니고 있지 않으므로 北京에 입조할 수 없다며 강화를 위해서는 향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도요토미의 향표를 얻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양인은 향표를 조작하기로 결심하였다.⁵⁹⁾ 도요토미에 대한 책봉과 조공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향표를 만들었던 것이다.

만력(萬曆) 23년 12월 21일 일본 관백(關白) 신(臣) 평수길(平秀吉)은 항공하여 머리 조아리고 상언(上言)하여 청고(請告)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상성(上帝)께서 두루 비추는 광명(光明)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비추지 않는 것이 없으며, 하국(下國)의 깊은 심곡(心曲)에 구하는 바가 있으면 울음으로 알리는 법이기에 어리석은 속마음을 열어 우러러 천청(天廳)에 간구(干求)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께서 하늘의 일덕(一德)을 도우시자 날로 사방(四方)이 청정(淸淨)되었고 황극(皇極)의 대도(大道)를 세우시자 간유(干羽)의 춤을 양계(兩階)에 베풀었고 성무(聖武)를 밝히시자 멀리 있는 만국(萬國)의 사람들이 귀의해 왔습니다. 천은(天恩)은 넓고 넓어 원근(遠近)의 창생(蒼生)들에게 두루 미치는 것이니, 일본(日本)이 아득히 먼 나라지만 모두 천조(天朝)의 백성들입니다. 여러 번 조선에 부탁하여 저의 뜻을 전달(傳達)해 달라고 하였으나 끝내 비밀에 부치고 천조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호소하려 해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한을 품고 있던 터라 서 부득이하여 원수를 맺게 된 것이지 까닭 없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허위로 천자의 청문을 번독(煩瀆)하였으나 우리 일본은 충정(忠貞)을 자부하는 나라인데 어찌 감히 왕사(王師)를 맞아 싸우겠습니까. 유격(劉楛)·심유경(沈惟敬)의 간곡한 충고(忠告)가 있음에 따라 평양(平壤)을 양도하였고, 풍신(豊臣)·행장(行長) 등이 정성을 바쳐 덕화(德化)에 부응하기 위해 한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조선(朝)의 이간으로 전쟁을 일으킬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들이 사상(死傷)을 당하여 끝내는 관(棺)을 거두어 갈 길이 없게 된다 하더라도 왕경(王京)에서 유경과 맺었던 구약(舊約)을 다시 밝히기 위해 일본의 여러 장수들이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성곽(城郭)과 추락(樞)을 돌려주어 더욱 성의를 다하는 정성을 보

59) 『懲毖錄』, 卷二 癸巳(1593年) 12月 이후에 ‘降表가 도요토미의 것이 아니고 고니시 등이 조작한 것’이라는 소문이 명나라 조정에 돌았다고 한다. 柳成龍 『懲毖錄』, 上, 韓日文化研究所(1960), 229쪽. 조작에 대해서는 『鮮人の記せる豊太閤征韓戰記』, 朝鮮研究會(1912), 104~105쪽 참조.

였고, 왕자와 대신을 돌려보내고 토지를 돌려주는 등 공순(恭順)한 마음을 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수인 소서비탄수(小西飛彈守)를 차송(差送)하여 저의 속마음을 진달하는 것은, 천조(天朝)가 용장(龍章)을 내리시어 일본에 총영(籠榮)이 내리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陛下)께서는 일월(日月)이 조림(照臨)하는 것 같은 광명을 내리시고 천지가 덮어 주고 실어주는 도량을 키우시어 구례(舊例)를 살피 특별히 변왕(藩王)에 책봉하시는 명호(名號)를 내려주신다면, 신 수길(秀吉)은 지우(知遇)에 대한 큰 덕에 감격하여 정려(鼎呂)보다도 더 무겁게 생각할 것인데 이 높고 깊은 큰 은혜에 보답하는 데에 어찌 몸을 아끼겠습니까. 대대로 변리(藩籬)의 신하가 되어 영원히 해방(海邦)의 공물(貢物)을 바치면서 황기(皇基)가 천년토록 크게 안착하시고 성수(聖壽)가 만세까지 길이 뻗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신 수길은 하늘을 우리르고 성상을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 그지없습니다.⁶⁰⁾

7조항의 문서와는 완전히 판판이며 할지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은 명나라의 赤子로서 몇 번이나 조선을 통해 봉공을 원하였으나 조선이 이를 숨기고 전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전쟁을 일으켰으며 구례에 따라 변왕으로 책봉해 주면 감지덕지 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이런 식으로라면 7조항의 가장 중심이었던 조선에 대한 4도 분할안도 당시 명나라 조정에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

60) 『宣祖實錄』, 卷51, 甲午(1594年) 5月 辛丑(24日)日條 李爾錫 『壬辰戰亂史』 [개정증보판, 下 (1977), 1665~1666쪽 李爾錫 앞의 책 中 878~879 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 萬曆21년 12월 21일 일본 관백인 臣 平秀吉은 誠皇誠罔으로 稽首頓首하옵고 上言請告하옵나니..... 여기에 天聽을 얻고자 업드려 아뢰옵나이다. 일본은 미약하나 모두 천조의 적자이오며 유격 沈惟敬이 충고하고 명백히 타일러서 평양에서 시정을 제안하옵고 고니시 등이 이에 감동하여 정한 바 경계선을 넘지 않고 있었던 바 조선에서 반문을 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사옵고 비록 아중이 사상하였사오나 마침내 관을 왕경에 묻지도 못하였나이다. 유경이 전약을 다시 말하고 일본 제장들이 초심을 바꾸지 않았사오며 성곽을 돌려 보내고 군마의 芻糧을 바쳐서 더욱 지성을 나타내 마음을 모아 농촌에 돌아가 恭順의 뜻을 다하려고 하옵나이다. 이제 一將 小西飛彈守를 보내어서 적심으로 아뢰옵나니 바라옵건대 천조의 龍章과 銀錫을 얻게 되옵는다면 일본으로서는 鎮國의 籠榮이 되겠나이다. 북망하옵나니 陛下께옵서는 日月照臨之光을 여시옵고 天地覆載之量을 넓히시와 舊例에 比照하시어 冊封으로 藩王 名號를 特賜하시옵소서. 臣 秀吉은 知遇之洪休에 感하와 鼎臺를 增重하겠사오며 高深之大造에 答하와 어찌 髮膚를 아끼리오까. 세세로 藩籬之臣이 되옵고 오래토록 海邦之貢을 바쳐서 皇基의 丕赫하시기를 천년토록 비오며 성수의 綿延하시기를 만세토록 축하옵나이다. 臣 秀吉은 無任瞻天仰聖하옵고 激切屏營之至로소이다.”

다.61) 沈惟敬은 1594년 1월 말 부산을 출발해 遼陽으로 돌아가서 명나라 조정에 위작된 봉공안을 보고했다.

V. 明의 종주권 확보 노력과 조선의 강화반대, 1593~1594

1. 명나라 조정에서의 화전양론

명나라의 강화론자 石星·宋應昌에 맞선 강화반대론자들의 논리는 ‘강화를 했는데도 함안·진주를 침범하고 다시 권토중래를 노리오니 믿을 수 없다는 것(병부주사 曾偉芳)⁶²⁾과 ‘倭奴들은 조선의 怨讐이니 곧 중국의 원수이므로 봉공할 수 없다는 것’(工科給事中 徐觀瀾) 등이었다. 후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

공과급사중(工科給事中) 서관란(徐觀瀾)이 명나라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폐하(陛下)께서는 동정(東征)의 군대를 왜 일으켰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노(倭奴)들이 우리 외반(外藩)을 짓밟아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왜노는 조선(朝鮮)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과거의 원수를 오늘에 와서 봉(封)한다면 이것은 원수를 봉하는 일입니다. 신이 보기에 조선은 안으로는 대국의 원조를 잃고 밖으로는 교활한 적병에게 물려 있으면서 호소할 곳도 의지할 곳도 없게 되면 반드시 꺾이어 왜노들 수중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중국에 부속되었던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어 교활한 원수인 적들에게 조선이 보태어지게 한다면 이는 적에게 칼을 빌려주고 도둑에게 식량을 대어주는 격입니다. 슬기로운 자라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래 조선에서 청병(請兵)해

61) 이항복이 선조에게 “중국 조정 사람들이 매양 ‘당신 나라의 변방 신보(申報)는 다 믿을 수 없다고 했으니, 이 일도 반드시 자세하게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여 7조건이 모두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宣祖實錄』, 卷44, 癸巳(1593年) 11月 辛未(21日) 日條

62) 『明史』, 卷320, 列傳 第208, 外國 1, 朝鮮, 萬曆 21年 9月條, 10面 右.

온 상소문을 보면 왜노들이 현재 진취(進取) 할 계책을 꾸미고 있다고 자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총독 고양겸(顧養謙)은 왜노들이 이미 다 돌아갔다고 보고하였습지만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은 벽제(碧蹄) 싸움에서 패배한 후로는 감히 싸움에 대하여 말을 못하고 있고,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은 여송이 패배한 것에 징계되어 서둘러 강화를 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시정(市井)의 무뢰배인 심유경(沈惟敬)을 내세워 왜영(倭營)을 오가면서 감언(甘言)으로 달래기도 하고 후리(厚利)로 피기도 하면서 날마다 왜노들의 표문(表文)만을 애걸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창 역시 양겸의 협조를 얻어 힘을 합쳐 봉공(封貢)을 성공시키려 하고 있으므로 양겸 역시 사실대로 보고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동정(東征)에 임한 제신(諸臣)들이 저희들끼리 말을 꾸며 본병(本兵)을 속이고 있는 것이며 본병은 그들 피에 빠져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나라를 그르치기에 알맞은 뿐입니다. 거기에다 당사자들은 남의 말이 두려워서 봉공에 대하여 불편한 점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곧 따지기를 ‘당장 군대도 없고 군량도 없는 처지에 봉공 외에 달리 무슨 계책이 있다는 말인가. 만약 국가가 전성한 시기라면 내가 왜 군대와 군량이 없다는 구실로 대계(大計)를 망치겠는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이 땅에 왜노들이 오지 않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왜노들이 당장 들이닥친다면 그때도 그들은 군대가 없다고 해명만 하겠습니까.⁶³⁾

조선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단하는 부분은 300년 후의 역사를 정확하게 내다온 예견이다.

2. 중국의 분할기도

분할 논의가 일어나고 있었던 1593년 하반기에 명나라 병부(兵部) 給事中 魏學曾은 “조선이 이미 제대로 왜적을 막지 못하여 중국에 걱정을 끼쳤으니, 마땅히 그 나라를 둘이나 셋으로 나눈 뒤 능히 왜를 방어하는 자에게 주어 중국의 울타리로 되도록 조치하자”(朝鮮既不能禦倭貽中國之憂當分割其國爲二三視其能禦倭者而付之錯

63) 『宣祖實錄』, 卷50, 甲午(1594年) 4月 辛未(23日) 日條

置爲中國藩蔽事)고 황제에서 올리자 병부(兵部)에 내려 논의하게 되었는데, 명 병부 상서(尙書) 석성(石星)은 불가하다고 완강히 주장하였다.⁶⁴⁾ 중국의 분할안은 왜적을 방어하는 목적이었지 왜에게 나라를 내어주는 안은 비록 아니었지만 믿었던 중국 조정에서까지 분할문제를 제기하자 조선은 심히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 안을 명 宋應昌으로부터 일찍 접했던 조선의 接伴使 윤근수는 고민하다가 비밀리에 선조에게 알렸다. 11월(윤달) 1일에 선조는 유성룡을 불러 명나라 사신 앞에서 임금 자리를 내어놓겠다고 까지 했으나 유성룡은 만류했다. 이 대목에서 중국은 역시 조선의 종주국으로 자처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속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도 알 수 있다.

3. 조선의 강화반대와 石星의 주청 개요

조선 조정에서는 처음부터 강화를 반대하여 이 뜻을 宋應昌과 李如松에게 전하고 조선에 온 勅使 行人 司憲에게 일본군은 “위력으로 억제하여야 마땅하며 화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며 강화반대의 뜻을 1593년 윤11월 14일 분명히 했으며⁶⁵⁾ 謝恩使 金暉를 명나라 조정에 보내어 원병과 식량을 구하는 등⁶⁶⁾ 노력을 계속했다. 명 조정의 화전양론 속에서 명 병부상서 石星은 조선의 왕이 대외강화의 윤희를 명 황제에게 청하는 것만이 강화를 조속히 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략 顧養謙에게 이를 명하니, 고경략은 1594년 4월 삼장 胡澤을 조선에 보내어 강화촉진을 위한 조선국왕의 주청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宣祖修正實錄』, 卷28, 甲午(1594年) 5月 戊寅(1일)日條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64) 『宣祖修正實錄』, 卷27, 癸巳(1593年) 閏11月 辛巳(1일)日條, 『선조수정실록』, 4, 26년 - 41년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9), 42쪽, 『리조실록』, 209 (선조수정 3), 259쪽 남한의 번역은 “두셋으로 나눈 뒤 왜적을 막아내는 형편을 보아 나라를 맡겨 조처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소서”라고 되어 있으나, 북한의 그것은 “두세부분으로 갈라가지고 왜적을 잘 방어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스리게 함으로서 중국의 울타리로 삼을 것입니다”로 되어있다 북한의 번역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65) 『宣祖實錄』, 卷45, 癸巳(1593年) 閏11月 甲午(14일)日條, 『선조실록』, 10, 26년 10월 26년 윤11월, 209쪽

66) 『宣祖實錄』, 卷46, 癸巳(1593年) 12月 乙卯(6일)日條, 『宣祖實錄』, 卷46, 癸巳(1593年) 12月 丙辰(7일)日條.

고 경략(顧經略)이 참장(將) 호택(胡濶)을 우리 조정에 보내어 차북(箭符)로 조신(朝臣)들을 유시하였는데 그 대략에 “왜노(倭奴)가 아무 까닭없이 그대 나라를 침범하여 과족지세로 세 곳의 도회(都會)를 점령하고 그대들의 토지와 인민의 십중 팔구를 차지하였으며, 그대들의 왕자(王子)와 배신(陪臣)을 포로로 하였다. 이에 황상(皇上)께서 노하시어 왕사(王師)를 일으켜서 한 번 싸워 평양(平壤)을 쳐부수고 두 번 싸워 개성(開城)을 빼앗으니 왜노는 마침내 왕경(王京)에서 달아나고 왕자와 배신을 송환하였으며, 땅 2천 리를 회복하였다. 소비한 탕금(幣金)이 셀 수 없이 많고, 사마(土馬)가 죽은 것 역시 적지 않다. 속국을 대하는 우리 조정의 은의(恩義)는 이 정도로 그칠 것이지만 황상(皇上)의 망극하신 은혜는 또한 이미 과분하였다.

이제 군량을 다시는 운송할 수 없고 병력은 이미 재차 동원할 수 없게 되었는데, 왜노 또한 위엄이 두려워 항복을 청하면서 봉공(封貢)을 바라고 있으니, 천조(天朝)에서는 봉공을 허락하여 외신(外臣)이 됨을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노를 모조리 몰아내어 바다를 건너게 하고 다시는 그대 나라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서 난리를 수습하고 병란을 그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대 나라를 위해서도 원대한 계획이 된다 할 것이다.

지금 그대 나라는 식량이 다 떨어져 백성이 서로 잡아먹을 정도가 되었는데, 또 무얼 믿고 군사를 청하겠는가. 이미 그대 나라에 군대와 양식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왜노의 봉공하는 길까지 막으면 왜노는 필시 그대 나라에 화풀이 할 터이니 그대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어찌 일찍부터 스스로 계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들이 왜노를 위해 봉공을 청해서 만약 허락을 얻게 되면 왜노는 반드시 더욱 중국을 감사히 여길 것이고 또 조선을 고맙게 여겨 반드시 군사를 철수해 떠날 것이다. 왜노가 떠난 뒤 그대 나라의 군신(君臣)이 끝까지 노심초사하며 외신상담해서 월왕(越王)이 하던 대로 닦아 나간다면 천도(天道)는 돌리기를 좋아하는 법이니 어찌 왜노에게 복수할 날이 없다고 단정하겠는가”하였다. 호택이 석 달 동안 유관(留館)하였으나 이에 대한 우리 조정의 의논이 결정되지 않았다. 임금이 결코 따르려 하지 않고서 누차 엄지(嚴旨)를 내렸는데, 영의정 유성룡(柳成龍)은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石星이 비록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선의 국왕을 이용하려 한 것이지

만 조선이 강화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胡澤의 요구에 대해 선조는 매우 강경하게 반대했으나 조정에서는 찬반양론이 다양하게 개진되었다. 유영경, 이이첨, 정인홍 등이 명분론으로 반대하였고, 성혼, 李廷龜, 유성룡 등은 현실론으로 이를 찬성하였다. 전라 순찰사 이정암이 밀소(密疏)를 올려, 경략(經略)의 차부(劄付)대로 황자(皇旨)를 따라 은인 자중하며 보존되기를 꾀할 것을 청하자 선조는 크게 노하여 그를 잡아다 국문할 것을 명하니,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찬성하였다. 그러나 마침 성혼(成渾)이 “정암은 실로 죄를 줄만 합니다 다만 정암은 평소 자신을 잇고 나라 일을 걱정하는 성의를 지닌 인물입니다. 지금 서장(書狀)이 놀랍기는 하지만 그 정성만을 취할 만합니다 또 말을 하면 죄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서 말을 했으니 자신은 절의(節義)에 복사(伏死)하는 일이 되게 하려는 생각에서 이 말을 한 것일 것입니다” 하니, 선조는 다시 노하여 성혼을 꾸짖으며 이르기를 “수적(讐賊)과 화친(和親) 하자는 것을 절의에 복사하는 일로 여기다니 매우 무리한 말이다” 하였다. 이에 성혼이 한 발 물러나자 정암을 파직시켰다.⁶⁷⁾

선조는 “중국이 본디 우리나라의 습성이 거짓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주청문을 기초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올리라고 요구했다.⁶⁸⁾ 그러나 고경략의 요구를 거절하면 후환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허락함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호택의 독촉이 심하였으므로 선조도 하는 수 없이 주청문을 기초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명나라가 조선에 파견한 東政官들이 파면(초대 경략 宋應昌이 1593년 12월에 대외정책을 잘못했다고 해임 2대 경략 고양겸 총독이 1594년 8월 철명을 주장하고 봉공을 소청하였다고 탄핵)되고 3대 경략으로 兵部右侍郎 孫鑣이 임명되었다. 한편 조선 조정에서는 주청문 중 봉공에 관한 것은 삭제하고 왜정에 관한 것만 기술하자는 의견의 우세하여 그렇게 기초했으나, 신임 경략의 부임 소식을 접한 후 보류하기로 하자는 의견의 우세하였다.⁶⁹⁾

1594년 6월 호택은 선조에게 말하기를 “평양을 탈환한 것은 이 체독의 공이고, 군량을 운반하고 군사를 조달한 것은 송 경략(宋經略)의 공이고, 올 정월 이후 적

67) 『宣祖修正實錄』, 卷28, 甲午(1594年) 6月 戊申(1日) 日條

68) 『宣祖實錄』, 卷51, 甲午(1594年) 5月 辛卯(14日) 日條

69) 권중현,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삼국(한·중·일)의 외교관계」, 61 쪽

이 다시 노략질을 함부로 못하게 된 것은 고 총독의 공이며, 경상도 일원을 수복한 것은 유 부총(劉副總)의 공입니다. 이번 김 배신(金陪臣)의 정문(正門)에 김 배신은 김수(金)이다. 북경에 가서 병부에 정문한 일이 있었다. 적이 경상도 일원에 가득차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李)·고(顧)·송(宋) 세 대감이 다 죄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비록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장관(將官) 중에 어느 누가 왕의 나라에 힘을 쓰겠습니까. 준허(准許)하고 안 하고는 조정에 달려 있으나 청컨대 주문을 올려 신구해 주십시오”고 말했다. 이에 선조는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이 다 여러 대인의 공 때문인데 지금 과도관의 논의가 분분하다는 말을 들었소이다. 그러므로 이번 배신(陪臣)의 걸음에 신변(伸辨)할 주문을 이미 완료하였으니 그에게 주어 보낼 것이오”라고 약속하였다.⁷⁰⁾

이렇게 石星-호택의 강력한 요구에 조선의 조정은 불안하게 되었다. 유성룡(柳成龍) 등이 앞으로 중국의 장상(將相)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해 힘을 바칠 자가 없을 것을 걱정하여 우선은 그들의 뜻에 따르려고 하였으나, 선조는 송경략(宋經略)이 화의를 주장하여 일을 그르쳤음을 통분히 여겼고, 심유경(沈惟敬)을 더욱 증오하여 수적(讐賊)에까지 비교하였으므로 뜻 신하들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⁷¹⁾ 결국 선조의 강경한 반대 때문에 그 뜻을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목에서 선조를 비롯한 조선 조정에서는 沈惟敬을 극도로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래에는 왜가 진치고 있으면서 다시 나와 노략질하지 않고 봉공(封貢)을 기다린다”는 주문(奏文)을 지었으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왜정을 상세하게 갖추는 형식 이면서 請封을 주청하는 형식은 아니었다. 그러나 호택이 다시 첨개(添改)하기를 청하여 결국에는 청봉(請封)하는 뜻으로 주문을 지어 1594년 8월 주청사(奏請使) 허옥(許瑬)이 호택을 따라 중국에 가게 되었다.⁷²⁾ 선조는 뒤에 호택의 협박으로 이러한 주문을 지었으나 만세를 두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크게 후회했다.⁷³⁾

『宣祖實錄』, 卷54, 甲午(1594年) 8月 庚申(15일) 日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해평 부원군 윤근수(尹根壽)가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총병이 주청 배신(奏請

70) 『宣祖實錄』, 卷51, 甲午(1594年) 6月 丁巳(10일) 日條

71) 『宣祖修正實錄』, 卷28, 甲午(1594年) 8月 丙午(1일) 日條

72) 『宣祖修正實錄』, 卷28, 甲午(1594年) 8月 丙午(1일) 日條

73) 『宣祖實錄』, 卷56, 甲午(1594年) 10月 戊辰(24일) 日條

陪臣)과 서장관을 보고자 한다고 하므로 신이 오늘 신흠(申鎭)과 함께 나가보았습니다. 총병이 말하기를 ‘왜적의 뜻은 봉공(封貢)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혼인을 구하고 땅을 할양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혼인을 구하는 것은 관백이 그 조카를 위해 중국에 혼인을 구함이고, 땅을 할양하라는 것은 한강 이남을 분할하여 왜적에게 부치고 이북은 중국에 부치자는 것이다.’ 따라서 왜의 진의가 봉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할지에 있음을 총병(劉縉)도 알고 있었으므로 주청 이후의 상황이 그렇게 순탄치 않음이 예견된다.

4. 할지안을 인지한 조선 조정: 沈惟敬에 대한 불신

한편 조선의 조정에도 7조항의 정확한 문서가 아닌 화친(和親)·할지(割地)·구혼(求婚)·봉왕(封王)·준공(準貢⁷⁴)과 망용의(蟒龍衣) 및 인신(印信)의 7 조건만이 1593년 11월경에 전해졌다. 할지는 들어 있으나 도요토미의 7개조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도원수 권율과 접반사 김찬이 명나라 劉縉에게서 입수한 것을 몰래 謄書한 것이었다.⁷⁵

한편 『宣祖實錄』, 卷40, 癸巳(1593年) 7月 甲子(12일) 日條에는 “소문에 들으니 한강을 경계로 서쪽은 명나라에 속하고 동쪽은 일본에 속하게 하면 비로소 화의가 시작된다”(飛語曰以漢江爲界西屬大明東屬日本講和始定)는 구절이 있다.⁷⁶ 그렇다

74) 準貢이 아니라 ‘通貢’이라는 자료도 있음. 황원구, 「〈明史〉「朝鮮傳」譯註(II)」 『동방학지』 15 (1973), 257쪽의 주 576.

75) 선조는 “일곱 가지 일 중에 할지(割地)에 관한 말은 전에도 있었지만 구혼(求婚)에 관한 일은 너무도 상서롭지 못한 일이 아닌가”라고 평했다. 『宣祖實錄』, 卷44, 癸巳(1593年) 11月 辛未(21일) 日條, 『선조실록』, 10, 26년 10월-26년 윤 11월 111~112쪽 원본은 二三面 下 한편 『宣祖實錄』, 卷41, 癸巳(1593年) 8月 甲申(3일) 日條, 『선조실록』, 9, 26년 7월-26년 9월 133~134쪽에 풍원부 원군 유성룡이 沈惟敬으로부터 도요토미의 奏本을 입수했다 하는데, 대등한 나라끼리 서로 교통하는 말로 보여 奏本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원본에 의하면 「대개 듣건대 치세에 오제가 제위를 선양하였다 하는데, 어찌 중국이라 해서 임금이 있고 夷狄이라 해서 임금이 없겠습니까? 로 시작되어 “進貢하고 朝覲할 것이니 백성들의 고통을 애석히 여기시어 도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首將 哈哩馬를 보내어 奏本을 가지고 아뢰게 합니다. 삼가 갖추어 奏聞합니다”라고 끝맺는데, 이러한 표현으로 보면 앞서 살펴본 내용보다 훨씬 예절바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조정에서는 폐역스러워 통분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 입수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점에서도 진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면 그 분할의 경계선은 38선에서 멀지 않은 한강이었다⁷⁷⁾ 또한 『明史』, 卷320, 列傳 第208, 外國 1, 朝鮮, 萬曆 21年 7月條 直前, 9面 左에도 [1593년 6월 하순 경] “왜가 함안 진주 일대를 차례로 침범하고 전라도에 육박하니 왜가 한강이남을 되찾아 王京[서울, 인용재]과 한강으로 경계가 된다고 공언하고 있다(聲復漢江以南 以王京漢江爲界)는 구절이 있다.⁷⁸⁾ 또한 유성룡의 『懲毖錄』, 卷13 辰巳錄 ‘慶尙道賊勢危急 請速具由 奏聞 天朝狀’ (癸巳[1593年] 七月) 에도 다음과 같이 소문이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沈惟敬이 왜장과 함께 간 후 도로에서 전하는 말을 들으니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어떤 이는 한강을 경계로 남북을 분할한다(或以爲請以漢江分南北) 하니 그 말이 놀라와 입으로 형용할 수도 없었다. 신이 함천에 있을 때 의병장 정인홍이 쇠고기와 술로써 명나라 군사를 먹이고 위로하니 유충병이 인홍에게 말하기를 “왜놈이 沈惟敬과 더불어 함께 가서 한강 이북으로 중국 땅을 만들고 이남으로 왜의 땅을 만들고자 하는데(欲以漢江以北爲中國 以南爲倭地) 명나라 조정에서 어찌 허락하겠는가미는 만일 허락한다면 너의 나라에서는 어찌 할 것인가”라고 하여 인홍이 그 말을 듣고 신에게 전하므로 신은 그제야 도로에서 전하는 말이 또한 유래한 데가 있음을 알고 몹시 놀랍고 마음 아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⁷⁹⁾

이 시점에 조선 조정에서는 도요토미의 4도 割地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않았

76) 남과 북의 서로 다른 국역본은 다음과 같다. 『선조실록』, 9, 26년 7월~26년 9월, 33쪽, 『리조실록』, 179 (선조 8), 48 쪽

77) 신복룡 교수는 “임란 당시 한강 분할안은 요즘의 한강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진강, 그리고 지금의 북한강과 남한강이 모두 한강의 개념에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진왜란 당시의 한강 분할안은 임진강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신복룡 교수가 이완범에게 보낸 이메일 논평문,” 2002년 2월 20 일

78) 「<明史> 「朝鮮傳」 譯註 (II)」 『동방학지』 15 (1973), 288 쪽에는 “한강 이남에 소문이 나기를 왕경과 한강으로 경계가 된다고 하였다”고 오역되어 있다 명 조정은 위와 같이 割地 문제에 대한 소문은 알고 있었으나 沈惟敬이 밀약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아 4도할지 등이 일본으로부터 제안되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79) 柳成龍, 『懲毖錄』, 下, 506-507 쪽 일본학계에서의 대동강설과 한강설 등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있다. 徳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戊編 朝鮮役』, 中卷 明治書院(1935), 468 쪽

고, 한강이남 割地라는 막연한 풍문에 의지한 논의만을 알고 있었다. 화의가 무르익을 시점에 일본이 공격하였으므로 그 이유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루어졌는데 경상 전라도 양도에서 조선의 관현-의병의 저항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割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사후에 판명되었다. 또한 경상도 밀양 이남을 할여 하려 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割地에 집착하여 한반도 남단의 적은 땅이라도 교두보를 확보하여했던 일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⁸⁰⁾

전선의 남하에 따라 일본은 제안 당시의 駐屯 지역인 대동강에서, 죽산-충주, 한강으로 분할선을 이동시켜 제안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 침략 이전에 이미 구체적인 분할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고니시의 죽산-충주선과 도요토미의 한강선(4도 割地)이 다소 다르다는 것에서 분할선의 결정 및 제안과정에 확고한 합의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⁸¹⁾

1594년 2월 초에 조선 조정에서 割地 논의가 빈발했다. 먼저 『宣祖實錄』, 卷48, 甲午(1594年) 2月 辛亥(2일)日條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접대도감 이덕형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 이덕형이 척총병을 만나보니 총병이 문서 한 통을 내놓았는데, 石尙書宋經略과 왕복한 문서였습니다. 대강의 요점은 宋應昌이 척총병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강화하는 모든 일을 맡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沈惟敬이 4도를 할

80) 朝鮮總督府(編), 『朝鮮史』 第4篇 第10卷 朝鮮印刷株式會社(1937), 156 쪽 해양국가 일본은 전통적으로 대륙의 割地 문제에 대해 집착했다. 19세기에는 조선에 대하여 분할을 기도함은 물론 청일전쟁 중 중국 대륙까지도 割地하려고 시도하였다. 日本外務省(編), 『日露交渉史』, 外務省 政務局(1944), 232~233 쪽

81) 이는 도요토미 정권과 고니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마도 집단간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고니시는 1593년 12월 24일 沈惟敬과 결탁하여 도요토미의 항복문서(關白降表)를 위작하였는데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 도요토미의 명에 대한 불신은 조장되어 결국 고명서 파동(후술함)으로 강화회담이 무산되었다. 이러한 미묘한 갈등 속에서 조선내 영지 확보라는 일본의 목표는 무위로 돌아갔다. 명의 조정은 조공과 명분으로 회유하여 일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일본의 도요토미는 조선내의 할지(割地)를 목표로 했으나, 강화 교섭사절이었던 沈惟敬(할지 [割地] 밀약)과 고니시의 자의적인 활동 향표 조작, 상대방의 목적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랜 공전 끝에 결론없이 끝나게 되었다. 윤웅상, 앞의 논문, 39쪽, 41쪽 정유재침이 일어나자 沈惟敬은 강화 무산의 책임을 물어 참형되었으나(후술함) 고니시는 위기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강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양하기로 허락했다는 말은 譚宗仁의 가인에게서 들었는데, 그 뜻은 오로지 저 희들끼리 서로 시기하는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척총병이 경략에게 보낸 稟帖에도 ‘八蒿에서 沈惟敬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들었는데 거짓인지 참인지를 모르겠다’ 하였습니다.....”⁸²⁾

처음 沈惟敬의 밀약설이 논의될 때 반신반의하는 것이 역력했으며, 割地에 대한 沈惟敬과 다른 대신들간의 의견대립에 대해 언급하여, 이 문제를 둘러싸고 권력투쟁이 시작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 조선의 조정은 처음부터 명나라 사람들간에 이견이 있음을 파악하여 그것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종주권을 가진 ‘명나라 황제가 조공국인 우리를 분할하는데 일본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도 4도 割地說을 확실히 인지했고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으며 역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무능한 조선의 조정이 할지설에 대해 몰랐고 대처하지도 못했다’는 기존의 통설은 잘 못된 것이다. 조선은 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했다.

또한 『宣祖實錄』, 卷48, 甲午(1594年) 2月 癸丑(4 일) 日條에도 조선 조정에서 행한 割地(분할)에 대한 문답에도 沈惟敬의 밀약설이 이어졌다

“戚金(척장, 명나라 副總兵으로 당시 구원차 조선에 와 있었음 인용자 첨가)은 심유경(沈惟敬)의 땅을 떼어준다(割地)는 말에 대해 심히 상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당초 왜적이 서울에서 물러가자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는데 지금 보니 땅을 떼어 준다는 약속 때문에 물러간 것 같다”고 선조가 말했다 이에 유성룡이 아뢰기를,
 “평양에 있을 때 들으니 沈惟敬이 왜적과 약속하기를 ‘대동강(大同江) 이하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하였다는데, 경성에서도 필시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척은 영리한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송(宋; 宋應昌, 인용자 첨가)에게 붙었다가 지금은 고시량(顧侍郎)에게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하고, 심충겸이 아뢰기를,
 “척금(戚金)의 말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까지 있습니다. 沈惟敬이 왜적에게 4도(四道)를 할양하기로 허락하자, 왜적이 ‘아무 표지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82) 『선조실록』 11, 26년 12월-27년 3월 179 쪽

떼어 주었다고 할 수 있는가? 반드시 표지를 정한 다음에야 된다 라고 하니 沈惟敬은 ‘천장(天將)이 이미 허락하였으니 너희는 그 땅에 갈고 심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합니다”⁸³⁾

선조는 沈惟敬이 割地를 밀약해서 왜적이 물러간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는데, 대동강선과 4도 분할설이 沈惟敬의 밀약과 관련되어 비교적 정확하게 열거되고 있다.

또한 『宣祖實錄』, 卷48, 甲午(1594年) 2月 乙卯(6일) 日條에 의하면 조선의 접반사(接伴使) 김찬(金鸞)이 왜의 강화 교섭 과정을 선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정월 25일에 총병(總兵)이 통사(通事) 이희인(李希仁)·유의빈(柳依攢)을 부르더니 좌우에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나서 비밀리에 말하기를, ‘담종인(譚宗仁)은 왜적의 진영에 억류되어 있고, 심 유격(沈遊擊, 沈惟敬, 인용자 첨가)이 근일 표문(表文)을 가지고 왔는데 천조(天朝)와 그대 나라의 일은 모두 삼(沈)이 망쳤다. 표문은 관백의 글이 아니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자신이 지은 거짓 표문이다. 관백은 행장으로 하여금 화친과 그대의 나라를 공벌(攻伐)하는 일을 전담하여 주관하게 했는데, 심이 행장과 한마음이 되어 행장에게 이르기를 ‘중국군은 모두 철수하고 다만 유총병(劉總兵)의 군사 5천 명만이 주둔하고 있다’하니, 유키나가가 듣고 크게 웃었다. 관백이 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 일이다. 첫째는 천조(天朝)와 혼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한강(漢江) 이남의 땅을 할양(割讓)받는 일이다. 沈惟敬이 말하기를 ‘땅을 할양하는 일은 석야(石爺; 병부상서[지금의 국방부 장관] 石星, 인용자 첨가)가 이미 허락하였으니 너희의 봉공(封貢)을 윤허받은 다음에는 임의대로 하라 하였다⁸⁴⁾

고니시가 도요토미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沈惟敬과 결탁하여 밀약했으나 그것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 예견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의 조정은 沈惟敬에 대해 비판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명나라 沈惟敬은 일본에 대동강 이남, 죽산-충주 이남, 한강 이남 4도

83) 『선조실록』, 11, 26년 12월-27년 3월, 185쪽

84) 『선조실록』, 11, 26년 12월-27년 3월, 200쪽. 中村榮孝도 『日鮮關係史の研究』, 中, 吉川弘文館(1969), 278쪽에서 위 자료에 주목했다. 한편 『宣祖實錄』, 卷51, 甲午(1594年) 5月 辛丑(24일) 日條에 의하면 이 표문은 중국사람이 지은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한다.

등의 할지(割地)까지 약속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토적 욕심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밀약은 강화사절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명나라 조정의 방침과 부합되는 것도 아니었다.

한편 都元帥 권율은 가토가 독실할 불교신자임을 알고 의승장 사명당 유정을 왜영에 보내 왜정을 알아봄과 동시에 군사를 철수하도록 유도하게 하였다.⁸⁵⁾ 유정은 1594년 4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토(加藤清正)와의 회동하여 강화 회담을 했는데 가토의 요구 또한 도요토미의 7개 조건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조건이 ‘조선 四道를 일본에 할양할 것이었다.’⁸⁶⁾ 5개조 요구의 실현 가능성과 고니사 沈惟敬의 강화교섭의 성공여부에 대해 가토는 유정에게 1594년 4월 14일 질문했는데 사명대사는 “四海地內는 모두 천자(신종)의 것인데 어찌 沈惟敬 일인이 천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奪與를 시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고니사와 沈惟敬의 할지(割地) 강화 방안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⁸⁷⁾ 이 대목에서도 할지(割地) 밀약은 沈惟敬의 독단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으며 조선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논리는 역시 ‘명 황제는 속국의 땅을 떼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사명대사를 통해서도 조선의 4도할지에 대한 반대입장이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생포에서 1595년 3월 2일 명의 章應龍 愼懋龍 양 도사(都司) 등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토는 비슷한 5개조를 제시하면서 조선의 4개 도(道)를 일본에 부속시키는 것을 역시 2번째 조항으로 하였다. 가토는 “명나라가 조선을 일본에 부속시킬 수 없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는 5개 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大明과 일본은 혼인을 할 것, 둘째 조선의 4개 도를 일본에 부속시킬 것(朝鮮四箇道屬于日本), 셋째 조선왕자[1인]⁸⁸⁾를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넷째 조

85) 『宣祖修正實錄』, 卷28, 甲午(1594年) 4月 己酉1일 日條
 86) 『宣祖實錄』, 卷55, 甲午(1594年) 9月 庚寅(15일)日條에 의하면 사명당은 이겸수(李謙受) 등과 1594년 8월 10일에 가토를 만났는데 “조선의 4 道를 떼어 일본에 주는 열 이 5 조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으며 이 5조는 도요토미의 방안임도 알 수 있다 李焜錫 『壬辰戰亂史』 上,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67), 880쪽, 下,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67), 1600쪽에 의하면 5 조건 중 2 조가 「割朝鮮屬日本事」이었다. 원문은 南鵬 (編), 『奮忠紓難錄』 乾에 수록되어 있다
 87) 李焜錫, 앞의 책, 上, 880~881 쪽
 88) 『宣祖修正實錄』, 卷29, 乙未(1595年) 3月 甲戌(1일)日條 『선조수정실록』, 4, 26년~41년, 89쪽에 의하면 왕자1인이라는 ‘1인’이라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다

선의 大官老人을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다섯째 조선의 大官家老는 화의를 함께 서약할 것⁸⁹⁾ 이러한 5개 조는 도요토미의 뜻을 거의 반영하고 있는 안이었다 선 조는 카토를 만났던 章愼 두 都司를 1595년 3월 26일 접견했는데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정을 보니 고니시가 비록 물러가더라도 카토는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또한 카토는 ‘表文은 모두 고니시가 보낸 것으로 관백이 아는 바가 아니다 만약 표문의 허실을 알고 싶으면 전에 보낸 표문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과 함께 관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확인하여 보면 허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카토의 본의는 그가 ‘만약 4개 도를 분할해 주면 일본으로 향할 생각이요 대명으로 향할 뜻은 역시 없다’(則以爲若割給四道 則欲向日本之意 亦無向大明之意云)고 한 것입니다..... 카토와 고니시는 본디 서로 사이가 나뉘는데 이제 만약 고니시가 봉합을 받고 먼저 돌아간다면, 카토는 반드시 노해 곧 바로 전라도 지방을 침범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카토는 만약 4개 도를 얻지 못한다면 죽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清正若不得四箇道 雖死不還云)⁹⁰⁾

카토는 도요토미의 본뜻을 왜곡시킨 고니시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카토와 도요토미는 4도 분할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고니시는 도요토미의 沈惟敬과 함께 항복문서를 변조시키고 ‘책봉하면 물러설 수 있다’는 밀약을 했음을 카토는 이미 알고 있었다 유성룡의 『懲毖錄』 卷二 丙申(1596年) 1월 이후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관백의 요구가 대체로 너무 커서 封貢뿐만 아니라 중국 조정(中朝)에서는 다만 책봉만 허락했을 뿐 조공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沈惟敬은 고니시와 서

89) 『宣祖實錄』, 卷61, 乙未(1595年) 3月 丁酉(24일)日條 『선조실록』, 15, 28년 3월-28년 7월 39쪽 사명당 대사에게 언급했던 5개안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1조는 천자와 결혼할 것 2조 조선 4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3조 전과 같이 교린할 것, 4조 왕자 1명을 일본에 입송하여 영주케 할 것, 5조 조선의 대관대신을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이 그것이다. 실록에 나오는 5조가 빠지고 3조가 삽입되었으며 실록의 3, 4조는 사명당에게 제시한 안의 4, 5조와 거의 같다

90) 『宣祖實錄』, 卷61, 乙未(1595年) 3月 己亥(26일)日條 『선조실록』, 15, 28년 3월-28년 7월 41쪽

로 친숙하기에 일을 임시 변통으로 꾸며내어 구차스럽게 성사시키고자 해서 실제로는 명나라 조정이든지 우리 나라(조선, 인용자 첨가)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일이 마침내 합의되지 못하고 말았다(惟敬與平行長相熟 欲臨事彌縫苟且成事 而不以實情 聞諸 天朝與我國 事竟不諧). 우리 나라에서는 즉시 사신을 보내서 [명 황제에게; 인용자 첨가] 그 사실을 빨리 아뢰었더니 石星과 沈惟敬 모두 죄를 얻게 되었고 명나라 군사가 다시 나오게 된 것이었다.⁹¹⁾

위 구절에 沈惟敬이 명나라와 조선의 조정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음이 적시되어 있다. 또한 후일 포로로 된 일본군 福田勘介의 공초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카토와 고니시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행장이 평양에서 패배한 일을 카토는 늘 말하고 고니시는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청정은 불가하다 하므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당초 강화할 때 고니시가 속여서 말하기를 ‘천조에서 장차 일본의 소원대로 해 줄 것이다’ 하였으므로 허락했는데, 봉사(封使)가 돌아간 후에 다만 봉왕(封王) 한다는 일만 있었을 뿐이고 실지의 이익이 없으므로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강화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실지의 일을 가지고 카토에게 말해야 이를 수 있습니다”는 것이다.⁹²⁾ 따라서 애초부터 카토의 뜻을 거스르고 강화를 시도한 것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5. 조선의 주청문 상주와 도요토미의 봉왕, 1594년 10월~12월

이러한 복잡한 사정 속에서 명나라 조정의 척화우세로 뜻을 얻지 못하고 있던 石星은 조선의 주문을 명 황제에게 올리면서 遼陽에 있던 小西飛의 입장을 윤택하여 주도록 주청했다.⁹³⁾ 이에 황제는 강화반대의 廷議를 누르고 小西飛를 입조케 하였다.⁹⁴⁾ 조선의 주청이 강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조선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1차자료를 보면 조선의 조정이 무능하여 모든 면에서 일본에게 유리당했다는

91) 柳成龍, 『懲愆錄』, 上, 238-239 쪽

92) 『宣祖實錄』, 卷93 丁酉(1597年) 10月 庚申(3일)日條

93) 『宣祖修正實錄』, 卷28, 甲午(1594年) 9月 丙子(1일)日條

94) 『明史』, 卷320, 列傳 第208, 外國 1, 朝鮮, 萬曆 22年 9月條, 10面 右.

통설은 비판될 수 있다. 이에 명나라 조정은 대외봉공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게 했는데 3개 조건에 합의했다. “첫째는 왜군을 통어하여 모두 돌아가게 하고 둘째 봉왕(封王)은 하되 조공(朝貢)과 관련시키지 말고, 셋째 조선을 재침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다”⁹⁵⁾였다.⁹⁶⁾ 명나라의 입장은 조공무역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도요토미가 후일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시되는 것이었다

1594년 12월 7일 요동에서 대기 중이던 일본의 小西飛가 북경에 도착하고 13일에 명 황제를 알현한 자리에서 강화3조건을 제시받고 약속대로 따를 것을 청하면서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여(指天爲誓) 일단락되었다.⁹⁷⁾ 명나라에서 환대받았던 小西飛는 전쟁을 끝내려는 현지 장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강화는 1년 반 이상 명 조정과 조선 조정의 화전 양론의 논의를 거친 것이었다.

VI. 강화 결렬과 전쟁의 재발, 1596~1597

1. 도요토미의 중국 사신 접견과 강화결렬, 전쟁 재발: 虛偽報告 파문, 1596

1595년 1월 30일 冊封使가 北京을 출발하여 4월 8일 남별궁에서 선조의 접견을 받는데, 이 자리에서 沈惟敬은 조선 四道の 割地란 풍설에 불과 貴國訛言盛行 至曰行長等必割得四箇道云云 此實虛傳 千萬勿疑 若待得四箇道則屯據 王城有何不可 而必退離 王城以據于海邊邑乎)하다고 말하여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⁹⁸⁾ 이러한

95) 『宣祖修正實錄』, 卷28, 甲午(1594年) 9月 丙子(1일) 日條

96) 『明史』, 卷320, 列傳 第208, 外國 1, 朝鮮, 萬曆 22年 9月 條 9面 右 左 “一 勒倭盡歸巢 一 既封不與貢 一 誓無犯朝鮮.”

97) 『明神宗實錄』, 卷280 萬曆 22年 12月 甲寅 日條, 5172面; 『宣祖修正實錄』, 卷28, 甲午(1594年) 9月 丙子(1일) 日條

98) 『宣祖實錄』, 卷62, 乙未(1595年) 4月 庚戌(8일) 日條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귀국엔 외전된 말이 성행하여 ‘고니시 등이 반드시 4개 도(道)를 떼어 가질 것이다’ 라는 말까지 있는데 이는 참으로 헛소문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4개 도 얻기를 기다렸다면 왕성(王城)에 눌러 있다고 하여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굳이 왕성을 떠나서 해변의 읍(지금의 진해시 웅천동) 당시

부인은 沈惟敬의 할지(割地) 밀약이 명 조정의 방침과는 배치되므로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沈惟敬의 밀약설은 그의 강한 부인 덕분에 조선 조정 초미의 관심사에서 다소 후퇴하며 일본의 割地 기도는 무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⁹⁹⁾ 조선 조정의 인식대로 명황제는 조선을 속국으로 간주했다. 그런 명황제가 ‘속국 일부를 할양한다’는 강화 교섭 사절의 실무적이며 실리적인 저차원의 밀약사항을 추진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일본은 책봉사의 입국을 지연시켰다. 명분은 영빈관을 짓는다는 것이었는데 그 시간이 꽤 오래 흘러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중국과 일본 모두 강화회담의 미래에 낙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1년 정도 지체되어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일본의 연락을 받고 부산에 도착한 책봉사 正使 李宗城은 1596년 4월 3일 밤에 도망치게 되어¹⁰⁰⁾ 명 조정은 副使 楊方후를 正使로 沈惟敬을 副使로 1596년 5월 4일 다시 임명하였다. 일본의 철군을 요구하면서¹⁰¹⁾ 잠시 지연되던 사신 행렬 중 정사는 6월 15일 부산을 출발하였으며 부사는 정사보다 먼저인 6월 12일 오오사카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조선통신사(정식 통신사도 아니고 明使陪臣도 아님)는 8월 8일 정사 黃愼 정삼쑤, 부사 박홍장 외에 309명의 일행으로 부산을 출발했다.¹⁰²⁾ 그런데 통신사는 왕자를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¹⁰³⁾로 도요토미의 접견을 거부당했으며,¹⁰⁴⁾ 9월 2일 책봉사는 오오

에는 응천현) 혹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포, 일본이 부산에 퇴거한 후 동쪽은 서생포부터 서쪽은 응천에 이르는 경상도 남해안 요지에 축성하고 월동하게 되었다, 인용자 첨가)에 있겠습니까.” 『선조실록』, 15, 28년 3월-28년 7월, 75쪽.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해변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은 조선 남단의 割地라도 집착해서 그런 것이었다.

99) 그렇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도요토미는 1596년에 沈惟敬을 만나서야 밀약을 통한 割地를 포기하게 된다.

100) 정사인 그가 도망친 이유는 沈惟敬이 본국을 속여 온 것을 알고 그 책임을 질까 두려워했다는 설과 도요토미가 황족인 자신을 볼모로 잡으려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최영희 「임진왜란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남명학연구』 제7권 1호 (1997), 9쪽. 이종성은 도요토미의 뜻이 봉공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宣祖實錄』, 卷76, 丙申(1596年) 6월 丁酉(1日) 日條

101) 1596년 5월 가토군의 철수로 고니시군을 위시한 대부분의 일본군은 철수했다. 그러나 부산성의 宗義智, 有馬晴信, 松浦鎮信, 大林純宣 등과 가덕성의 島津忠恒 軍 등이 잔류했었다. 이들 부산 지역 주둔군은 정유재란시 조선교두보의 역할을 하였다.

102) 미야케 히데토시(三宅英利), 김세민의 (역) 『조선통신사와 일본』, 지성의 샘 (1996), 61쪽

103) 『宣祖實錄』, 卷40, 癸巳(1593年) 7월 壬戌(10日) 日條에 의하면 “1년에 세 차례씩 조공을 바친다는 것과 전라도와 은 2만 냥으로 준 뒤에야 왕자와 세 陪臣 배신이라 함은 제후의 신하가 천자

사카성(大坂城; 메이지시대 이후에는 ‘大阪城’으로 표기)에서 도요토미를 만났다. 도요토미는 향응을 베푸는 등 성대히 환영했다. 9월 3일 명나라 신종의 誥命과 勅諭의 내용이 도요토미의 일본왕 책봉에 그치며 조선의 할자-중국 황녀와의 결혼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된 도요토미(105)는 대대적인 재파병을 결심하여 그 동안의 강화 교섭은 결렬되고 정유재란(1597)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2. 沈惟敬의 참형: 전쟁 재발의 책임추궁, 1597

1596년 12월 21일 책봉사 일행은 부산에 귀환하고 1597년 2월 15일 명나라로 復命하였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책봉이 성립하지 않은 책임을 沈惟敬에게 지울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조선으로의 渡海를 완료한 1597년 6월 沈惟敬은 倭營으로 도피하던 중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죄명으로 7월 5일 체포구금되어 참형되었다. 106) 이런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봤을 때 沈惟敬의 제안은 명나라 장수들 간 권력투쟁의 과정이며 산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유재란이 일어날 때 沈惟敬은 講和의 주역으로 전쟁의 재발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져야 했다.

에 대하여 자기를 일컫던 말인데, 명나라가 우리 나라를 제후의 나라로 인정하고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을 송환하겠다는 것'이 고니시의 요구조건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국역본은 『선조실록』 9, 26년 7월-26년 9월, 25쪽이다.

- 104) 李進熙·姜在彦, 『日朝交流史』, 113쪽; 이진희·강재언, 『한일교류사』, 129쪽.
- 105)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中, 吉川弘文館 (1969), 202쪽에 의하면 이미 가토에 실토에 의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 106) 경리 楊鎬가 부총병 楊元으로 하여금 拿捕케 하였다. 『兩朝平壤錄』, 卷4, 日本 上; 李焜錫, 『壬辰戰亂史』, [개정증보판, 上, 1977], 453쪽; 李焜錫, 『壬辰戰亂史』, [개정증보판, 中, 938-939쪽; 李焜錫, 『壬辰戰亂史』, 上, 453, 938-939쪽; 『明神宗實錄』, 卷12 萬曆25年7月 丙辰日條 5848面; 『明神宗實錄』, 卷317 萬曆25年 12月 癸亥日條, 5905面; 조중화, 『다시 쓰는 임진왜란사』, 학민사 (1996), 213-214쪽. 과연 沈惟敬이 조선 할지 割地 밀약을 맺을 때 자신을 추천했던 병부상서 石星의 동의를 얻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점인데, 사료 상으로는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인용한 『宣祖實錄』, 卷48, 甲午(1594年) 2月 乙卯(6일)日條에 石星이 할지에 대해 승인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石星의 은공을 입었던 沈惟敬이었으므로 그의 뜻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유재란 시 沈惟敬이 처형될 때 石星 또한 ‘沈惟敬 고니시와 짜고 황제를 속였다’는 죄목으로 1597년 9월 파면 투옥된 후 『明神宗實錄』, 卷14 萬曆25年9月 壬辰日條 5866面.) 다음 해 옥사하는 것으로 보아 石星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성무 교수는 『조선왕조사』, 1, 서울: 동방미디어 (1998), 477쪽에서 沈惟敬은 “허위보고라는 비상수단까지 동원하면서까지 화의의 성립에 노력”했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 전쟁 재발에 대한 복합적 설명

그런데 도요토미의 1596년 9월 3일 전쟁 선언 후 다음 해 6월 중순 말에서 7월 사이(일본 대군 침략)까지 일본군은 왜 기다렸을까? 이에 대해 최근의 연구에서는 재침은 할양을 실력으로 강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강화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되었다. 즉 재침 직전 조선과 일본을 왕래하며 외교적 질충에 나섰던 야나가와의 역할을 통해서 추론해 본 바에 의하면 도요토미는 당시의 일본 병력으로 조선남부 특히 전라도 지역을 실력으로 점령하는 것은 무리(경상도 지역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함)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¹⁰⁷⁾ 따라서 그는 강화를 통해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구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야나가와의 역할은 1597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다. 최초로 도요토미가 요구했던 것은 조선왕자의 파견이었는데 이에 대해 야나가와는 조선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른 일본 대신처럼 허위보고를 하게 되었다. 즉 조선측이 왕자대신 왕제 및 대신 즉 인질을 파견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했다. 도요토미는 인질파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일본 전국시대부터 패전한 측이 승전한 측에 행했던 관례를 이용해서 조선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일본이 승리한 것이라고 일본 국내에 선전하여 전쟁발발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⁰⁸⁾ 이렇게 조선이 먼저 강화를 요구하면 일본은 승전한 것이라고 일본인에게 선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요토미는 이것이 야나가와의 허위 보고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내면서 다시 전쟁재개의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이 강화를 하지 않

107) 福田勘介의 공초에 의하면 정유년에 “관백이 사람을 보내어 전령하기를 ‘서울은 침범하지 말고 9월까지 닥치는 대로 무찔러 죽이고 10월 안으로 서생포나 부산 등의 소굴로 돌아 오라’ 고 했다. 그래서 서울까지 3일 길밖에 안 되는데 곧바로 돌아간 것이며 전라도에도 머물 뜻이 없었다(全羅道亦無留住之意).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걸을 수 있는 자는 사로잡아 가고 걸지 못하는 자는 모두 죽였으며, 조선에서 사로잡은 사람들은 일본에 보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일본에서 농사짓던 사람을 군사로 바꾸어 해마다 침범하고 아울러 중국까지 침범하려 하고 있다. 10월 안으로 청정은 울산에 새로운 진지를 만들 것이며 올해와 내년 사이에 다시 출동할 뜻은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宣祖實錄』, 卷93 丁酉(1597年) 10月 庚申(3일)日條, 金文子, 「秀吉의 조선재침략 직전의 일본측 동향에 대해서: 柳川調信의 활동을 중심으로」, 『祥明史學』 3 · 4 (1995년 12월), 445쪽

108) 金文子, 「秀吉의 조선재침략 직전의 일본측 동향에 대해서: 柳川調信의 활동을 중심으로」 『祥明史學』 3 · 4 (1995년 12월), 436쪽.

아 전쟁을 재발했다는 것은 전쟁재발의 책임을 조선에 전가하려는 속셈이었을 수 있으며 실제적 속셈을 호도하려는 하나의 명분일 가능성이 있다. 전쟁 발발의 책임을 가졌던 일본은 이것도 조선이 假道入明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침략 책임을 전가했던 전력이 있었다.¹⁰⁹⁾ 임진왜란을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으로 간주하는 일본 내 객관적 연구자인 기타지마 만지도 재침을 ‘조선영토를 탈취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므로¹¹⁰⁾ 재침의 이유가 ‘조선에 대한 야욕’ 실현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전라도도 지배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있었으므로 영토 탈취와 할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감행은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영토 탈취 면에서는 비현실적이었으며 ‘실패한 시도’였지만 시도는 역시 시도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도요토미의 재침은 하나의 단일 명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조건 등이 다차원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복합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 일부(4도, 혹은 전라·경상·충청의 下三道, 혹은 경상·전라도, 아니면 위와 같이 경상도)의 할양을 실력으로 강행하려 했다는 점, 조선의 두 왕자가 사죄하러 오지 않았다는 점, 당초 무엇을 위해 출병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본에서도 제기되어 도요토미의 위신이 손상되었으므로 재출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¹¹¹⁾ 일본 전국시대에 행해졌던 인질정책을 조선에 적용해 조선을 지배하려 했던 점(보다 본질적인 시각임)¹¹²⁾ 등에다가 ‘강화에 대한 조선의 소극적 태도’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VII. 맺음말: 16세기 분할안의 무산이유와 역사적 의미

전쟁은 장기전으로 지속되는 와중에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입장은 한반도 문제

109) 이러한 견해는 패전후의 교과서에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김문자 「일본인과 임진왜란」 『祥明史學』 6 (1998년 12월), 134쪽.

110) 北島万次(Kitashima Manji), 『豊臣秀吉の朝鮮侵略』, 日本歴史學會(編), 吉川弘文館(1995).

111) 李進熙·姜在彦, 『日朝交流史』, 114쪽, 이진희·강재업, 『한일교류사』, 129쪽

112) 中村榮孝, 「文祿 慶長の役」, 『岩波講座 日本歴史』, 岩波書店 (1935);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中, 吉川弘文館 (1969), 213쪽, 北島万次, 『朝鮮日日記 高麗日記 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 そして (1982) 283쪽, 金文子, 앞의 논문 50쪽

를 중심으로 갈등 양상을 보였다. 즉 책봉이외에 더 이상의 양보를 하지 않아 조선과 속국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과 조선을 분할하여 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일본의 속셈이 충돌하였으며 결국 전쟁 재발의 한 원인이 되었다.

도요토미의 조선침략¹¹³⁾은 그의 ‘대아시아제국 건설계획에 따른 첫 번째 해외 정벌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는 중국, 한반도, 인도, 페르시아, 류구, 臺灣, 필리핀과 남태평양의 섬들로 구성되는 대아시아제국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대아시아제국의 수도는 北京으로 정하려 하였다. 이 대아시아제국 건설의 첫 단계로 한반도, 중국과 주변의 섬들을 정복하고 1594년에 일본 천황을 북경에 거주하게 하며, 히데요시 자신은 南京에 머물면서 대아시아건설의 제2단계인 인도정벌에 착수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1592년 4월 15만 대군을 부산으로 출병시킨 도요토미는 수도 漢城을 함락시킨 5월에 “교요오제이(後陽成) 천황은 북경으로 천도하고, 동생 히데쓰구를 명나라 關白으로 하고, 조선 국왕은 일본으로 이주시키고, 히데요시 본인은 인도 정복에 착수한다”는 것 등을 발표했다¹¹⁴⁾

도요토미는 시초부터 조선을 무혈 혹은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중국 침략의 교두보로 삼아 대륙을 석권하려 했다. 그러나 해전의 실패와 평양패전 등으로 북진이 좌절되고 보급품의 부족, 질병, 사기저하 등으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최소한 남해안의 교두보만은 지키고 할지를 기정사실화 하여 재기를 노렸다. 도요토미의 전략에 대한 명나라의 대응은 초기에는 화전양면작전을 펴 沈惟敬을 보내기도 하고 평양승전을 얻어내기도 했으나, 벽제패전 이후 동정관들의 사기저하로 명 조정의 강화반대 분위기에 불구하고 병부상서 石星의 主和가 계속 추구되었다. 그

113) 村井章介, 「임진왜란의 역사적 전제」 『남명학연구』 제7권 1호(1997), 15 쪽에는 일본군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조선의 내부사정도 발단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114) 김우현 교수는 「일본의 ‘환태평양연대구상’의 역사적 배경」 『부산산업대학 논문집』 제2집(1981), 210~211 쪽에서 Kuno Yoshi, *Japanese Expansion on the Asiatic Continent* (Port Washington, 1967), vol. 1, pp. 143, 148, 168; Roger Bersihand, *Geschichte Japans* (Stuttgart, 1963), S. 211 등을 인용하면서 “임진왜란 이후 기유약조(1609)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남부를 일본에 양도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는 설을 제기했으나 이 약조는 대마도주와 조선이 맺은 조약이므로 중국에 요구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 기유약조는 무역에 관련된 조약으로 이에 대해서는 김승일·이은우,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지식마당 (2002), 239쪽 참조.

래서 조공을 당근으로 일본군을 회유하여 완전 철수시키려는 명나라와 할지로 교두보를 지키려는 왜측이 ‘강화회담’이라는 구실로 상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요토미와 명나라 조정을 중재한 명·일 양국 사절(沈惟敬과 고니시)들은 적을 속이기보다는 주로 자기 조정을 기만했다. 이에 더하여 자국의 뜻을 상대방에게 바르게 전달하지 않아(이는 적을 속인 것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적을 속였다고 자기 측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자기 조정도 기만한 경우이다) 5년 동안 논란이 지속되다가 진실이 알려지는 순간 강화는 결렬되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1592년부터 계속된 강화회의는 1596년 일본에서 결렬되었던 것이다. 沈惟敬-고니시가 합작한 ① 명 조정에 대한 항포 조작과 ② 도요토미에게 강화합의를 과장한 것은 잠시 긴장을 진정시키기는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도요토미에 의해 강제 동원된 열전을 끝내려는 시도였던 측면도 있고 한창 진행 중인 전쟁의 김을 빼게 하여 상호간의 희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휴전을 얻어내기도 했다지만¹¹⁵⁾ 잘못된 강화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해 쌍방의 희생을 가중시켰다는 상반된 평가도 가능하다.

회담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이유는 명나라와 일본간의 미묘한 입장차이에서 기인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① 명의 황녀로써 일본의 후비(后妃)로 삼게 할 것 ② 조선의 8도 중 4도를 할양할 것, ③ 감합인(勘合印: 貿易證印)을 복구할 것, ④ 조선의 왕자 및 대신 1~2명을 인질로 삼을 것 등을 먼저 요구하였으나 沈惟敬은 이 요구를 명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고니시와 짜고 거짓으로 명나라에 보고하여 명에서는 도요토미를 일본의 왕으로 삼는다는 책봉안으로써 국면을 해결 지으려 했다. 명은 1596년 도요토미의 일본 국왕 책봉의 칙서와 금인(金印)을 보냈는데, 회의는 결렬되고 이듬해 일본군은 재차 침입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주제인 분할안에 국한해 보면 16세기 말 조선의 분할안은 당초 일본이 제안했으며 명의 강화 사신 沈惟敬 등이 그 수용을 검토하여 일본과 유착했으나 명 조정과 조선 조정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명나라 조정의

115) 일본군이 평양이북으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한 것과 서울에서 철수한 것을 강화회담에 임한 沈惟敬의 공으로 돌리는 견해가 있다. 그것보다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와 의병에 기인한 바가 컸으며 실상 沈惟敬의 용산강화로 인해 일본군으로서는 적지 깊숙한 곳으로부터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며 조선으로서는 적을 격퇴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게 된 측면도 있다.

반대 때문에 조선이 일본에 할양되지 못했지만, 일본의 영토 할양 야욕을 감지했던 조선의 극렬한 강화 반대도 割地를 무산시킨 중요한 요인이다.¹¹⁶⁾ 도요토미가 1598년 8월 18일 사망하면서 전쟁 종결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사실¹¹⁷⁾도 割地의 궁극적 무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아시아제국 건설계획은 1598년 그의 죽음으로 끝났다. 도요토미 사후 정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일본군의 전면철수를 명하자, 공식적인 정전협정이나 강화조약 없이 왜란은 7년만에 끝났다. 이렇게 전란이 오래 지속된 이유 중의 하나는 진의가 은폐된 상태에서 강화회담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명나라는 일본의 조선침략을 방어하는데 일조하였으며¹¹⁸⁾ 일본의 영토 확보 기도를 무산시켰으므로 조선에

116) 『明神宗實錄』, 卷268, 萬曆21年 12月 庚戌朔, 4979面, 『明神宗實錄』, 卷268, 萬曆21年 12月 丙辰條, 4983~4985面; 德富猪一郎, 『近代日本國民史』, 8, 豊臣氏 時代(戊篇) 朝鮮役(中), 民友社(1935), 479~480쪽; 김석희, 「임진왜란중의 강화교섭에 대한 소고」 『부산대문리대학보』 9 (1966).

117) 그렇지만 그의 사망이 일본군 철퇴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아니며 의병의 저항, 이순신 등 조선수군의 승전에 따른 보급로 차단, 일본군 장수들 사이의 불화 명의 참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쟁의 대세가 결정되었다.

118) 명의 참전은 조선을 구한다는 명분 아래서 이루어졌지만(오늘 날 중국인들은 抗倭援朝라고 부른다; 한국전쟁 당시의 抗美援朝를 연상케 함) 실제로는 자국 국민과 국토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다.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57쪽; 권중현,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삼국(한·중·일)의 외교관계」, 1975, 30~31쪽 또한 명은 적극적으로 왜와 싸우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강화협상을 추진하는 와중에서 조선을 소외시키면서도 그 내정에 간섭했다. 벽계폐전 이후 주력군은 평양으로 철수하여 나오지 않기도 했다. 그렇지만 명의 참전으로 조선이 전쟁을 해결하는데 큰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투는 우리 민족이 했지만, 동아시아의 맹주이자 대국 중국의 참전에 직면한 일본이 비록 상징적인 면에서라도 위축되었던 것은 당연했다. 한편 전쟁 발발 초기 조선의 조정도 일본군을 방어하기보다는 명나라에 의지하려 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국왕과 집권층은 파천의 혼란 속에서도 사대적이고 외세의존적인 ‘渡瀕內附論’者和 그에 반대하는 자주적이고 自救的인 ‘固守論’者가 전쟁 수행의 방도를 놓고 대립하였다. 이들은 절충을 계속한 끝에 당시 절대적이라고 간주된 왕권을 나누어 세자 광해군이 이끄는 별개의 조정을 만드는 分朝를 단행하여 항전했다는 것이다. 허선도, 「임진왜란론: 올바르게 새로운 인식」 『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1985) 545쪽의 각주 40; 손중성, 「임진왜란시 분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1992, 3쪽. 세자는 영변에 나아갔고 선조는 정주를 거쳐 의주에 있었으므로(茶山 丁若鏞, 『備禦考』 第4章 申位之敗績續川; 茶山 丁若鏞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정혜림(역주, 현대실학사, 2001, 62쪽) 항전의 결의조차 없었다는 견해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광해군이 7개월간의 군국대권을 시정한 것은 선조가 遼東에 들어가 內附해서라도 원병을 청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렇게 자주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측면이 있다. 황원규, 「<明史> 「朝鮮傳」 譯註 (II)」 『동방학지

대한 종주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16세기 일본의 명나라에 대한 割地 요구는 일본의 영토적 야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4도 할지는 일본의 도요토미가 제안하여 중국의 沈惟敬과 논의했는데, 그의 정치적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항복문서를 조작하면서 할지를 숨겼기 때문에 할지가 중국 조정에서 논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렇게 낮은 비중의 인물과 논의했다는 점도 할지안 무산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할지안이 명나라와 일본 조정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국제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안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당시 국제정세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범정부적이고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16세기에 처음으로 논의된 타국간 분할안의 분할선은 한강과 대동강이었는데, 이 선의 선택을 둘러싼 논란은 조선이 근대세계로 편입되어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침탈되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거의 같은 형태로 더욱 진전되고 반복되었으며 20세기 중반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¹¹⁹⁾ 16세기와 1900년 前後의 논의 한 축에는 일본이 있었던 점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16세기의 분할안은 강대국 간 한반도 분할안의 전근대적 기원을 볼 수 있는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¹²⁰⁾ 물론 당시의 분할안은 전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일본의 술책이었던 측면도 있고 일본과 중국의 최고권력자 사이에 논의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그 한계는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당시 최고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선까지 교감이 있었으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분할논의의 한 축에 일본이 있었으므로 전근대적 배경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제 식민

』 15 (1973), 238~239쪽의 주 509. ‘내부’에 대해서 이상백 선생은 明國領에 편입되는 것으로, 황원구 선생은 전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권중현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삼국(한·중·일)의 외교관계, 18 쪽

119) 뿐만 아니라 1945년에도 미국 내부에서 분할선을 38선으로 할 것이냐, 39도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40도선으로 할 것이냐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사후적으로 해석해 보면 38도는 대체로 한강변이고, 39도선은 평양·원산을 잇는 선으로 대동강변으로 간주할 수 있다. 40도선은 신의주 바로 아래와 함흥을 미국 점령 지역으로 확보하는 선이다. 1945년의 논의는 이완범 『삼팔선 획정의 진실』, 지식산업사, (2001), 201~210쪽에 나와 있다

120) 물론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일본은 조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선 통신사를 보내 달라고 간청하는 등 선진 조선과의 교류를 통해 문물을 수입하려 했다.

사관의 숙명론적 타율성론에 동의하여 분할이나 식민화는 필연적이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명과의 종속관계에 있던 일본이 히데요시의 침략으로 인해 국제적 국가주권을 확립했으며 결국 한반도를 식민화하여 대동아공영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일본의 시각은 자기중심적이며 국수주의적인 편협된 배타주의이고 전쟁 옹호론이므로 동양삼국의 조화로운 공존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용하기 따라서는 숙명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간의 문화교류를 매개할 수 있는 호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당시 두 개의 외세간 분할 논의가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아 야합의 성립하지 않은 데에 있으며 이에 반하여 1945년의 분할안은 미-소가 동의하여 실현되었다. 현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예전처럼 한국을 분할하는데 야합하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적어도 국제환경적으로는 통일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주변강대국인 3국 혹은 일본을 포함한 4국이 분할에는 야합하지 않지만 통일에 동의할 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당국자들은 통일 과정에서 두 세력(3국)의 이익을 조정하려는 외교 노력과 야합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체적 역량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1) 조선자료

- 『리조실록』, 176 (선조 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리조실록』, 179 (선조 8),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리조실록』, 209 (선조수정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선조수정실록』, 4, 26년~41년,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9.
 『宣祖修正實錄』, 卷27, 癸巳(1593年) 閏11月 辛巳(1일)日條
 『宣祖修正實錄』, 卷29, 乙未(1595年) 3月 甲戌(1일)日條
 『宣祖實錄』, 卷6, 25년 7월~25년 12월,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7.
 『宣祖實錄』, 卷26, 26년 7월~26년 9월,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7.
 『宣祖實錄』, 卷10, 26년 10월~26년 윤11월,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7.
 『宣祖實錄』, 卷11, 26년 12월~27년 3월,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7.
 『宣祖實錄』, 卷15, 28년 3월~28년 7월,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7.
 『宣祖實錄』, 卷27, 壬辰(1592年) 6月 丁酉(9일)日條
 『宣祖實錄』, 卷31, 壬辰(1592年) 10月 乙巳(19일)日條
 『宣祖實錄』, 卷36, 癸巳(1593年) 3月 庚午(15일)日條
 『宣祖實錄』, 卷36, 癸巳(1593年) 3月 己未(4일)日條
 『宣祖實錄』, 卷36, 癸巳(1593年) 3月 辛未(16일)日條
 『宣祖實錄』, 卷37, 癸巳(1593年) 4月 乙酉(1일)日條
 『宣祖實錄』, 卷38, 癸巳(1593年) 5月 癸亥(15일)日條
 『宣祖實錄』, 卷41, 癸巳(1593年) 8月 甲申(3일)日條
 『宣祖實錄』, 卷44, 癸巳(1593年) 11月 辛未(21일)日條
 『宣祖實錄』, 卷54, 甲午(1594年) 8月 庚申(15일)日條
 『宣祖實錄』, 卷55, 甲午(1594年) 9月 庚寅(15일)日條
 『宣祖實錄』, 卷61, 乙未(1595年) 3月 己亥(26일)日條
 『宣祖實錄』, 卷61, 乙未(1595年) 3月 丁酉(24일)日條
 『宣祖實錄』, 卷62, 乙未(1595年) 4月 庚戌(8일)日條
 柳成龍, 『懲愆錄』 卷二 癸巳(1593年) 12月.

柳成龍, 『懲忠錄』, 전2권, 釜山: 韓日文化研究所, 1960-1961.

2) 중국자료

『明史』, 卷320, 列傳, 第208, 外國 1, 朝鮮列傳, 萬曆 20 年 8 月條

『明神宗實錄』 卷255 萬曆20年 12月 己亥(13日)日條

『明神宗實錄』, 卷268, 萬曆21年 12月 庚戌朔丙辰條

『壬辰之役史料匯輯』, 上,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出版, 1990.

李光壽 (編), 『朝鮮壬辰倭禍史料』, 全5冊,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70.

3) 일본자료

『毛利家文書』

『豊太閤外征新史』

小瀬甫庵, 『太閤記』, 桑田忠親 (校訂), 全2卷 東京 岩波書店 1944.

2. 연구

권중현,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삼국(한·중·일)의 외교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사학과 1975, 32 쪽

金文子, 「秀吉의 病死風聞과 朝日交渉: 조선침략 전쟁중의 정보전달 문제의 일례로」, 『日本歴史研究』 8, 1998년 10월, 25~40 쪽

金文子, 「秀吉의 조선재침략 직전의 일본측 동향에 대해서 柳川調信의 활동을 중심으로」, 『祥明史學』 3·4, 1995년 12월, 429~446쪽.

김문자, 「일본인과 임진왜란」, 『祥明史學』 6, 1998년 12월, 119~136 쪽.

김문자,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의 시각 변천」, 『역사비평』 46, 1999년 2월, 312~325 쪽.

金文子, 「豊臣政權의 講和交渉에 關한 一考察 對馬그룹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사학과, 1989, 56쪽.

김석희, 「임진왜란중의 강화교섭에 대한 소고」, 『부산대문리대학보』 9, 1966.

김영작, 「四溟堂과 加藤清正 회담의 성과와 의의」, 四溟堂記念事業會 (편), 『사명당 유정 : 그 인간과 사상과 활동』, 서울: 지식산업사 2000.

노계현, 『한국외교사연구』, 서울: 갑인출판사 1983.

徳富猪一郎, 『近代日本國民史』, 8, 豊臣氏 時代(戊篇) 朝鮮役(中), 東京: 民友社, 1935, 479~480 쪽

- 「<明史>『朝鮮傳』(II)」, 『동방학지』 15, 1973.
- 甫庵太閤, 『秀吉の朝鮮經略』
- 北島万次, 『朝鮮日記・高麗日記 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 4, 東京 そしえて 1982.
- 北島万次(Kitashima Manji), 『豊臣秀吉の朝鮮侵略』, 日本歴史學會(編), 東京 吉川弘文館 1995.
- 辛基秀-柏井宏之(共編), 『秀吉の侵略と大阪城: ちょっと待て! 「大阪築城400年まつり」』, 大阪: 第三書館, 1983.
- 京口元吉, 『秀吉の朝鮮經略』, 東京: 白揚社, 1939.
- 朝鮮日記研究會(編), 『朝鮮日記を讀む: 眞宗僧が見た秀吉の朝鮮侵略』, 東京: 法藏館, 2000.
- 笠谷和比古-黒田慶一(共著), 『秀吉の野望と誤算: 文祿・慶長の役と關ヶ原合戦』, 東京: 文英堂, 2000.
- 中江克己, 『秀吉をめぐる女たち』, 東京: 河出書房新社, 1996.
- 片野次雄, 『李舜臣と秀吉: 文祿・慶長の海戦』, 東京: 誠文堂新光社, 1983.
- 片野次雄, 『이순신과 히데요시』, 金澤洙(譯), 서울: 廣明堂, 1992.
- 國富强, 『決断: 信長・秀吉・家康の先見性と統率力』, 東京: 經營實務出版, 1989.
- 大阪城天守閣(編), 『秀吉と大阪城: その歴史と謎をさぐる』, 大阪: 大阪城天守閣特別事業委員會, 1988.
- 角川書店(編), 『日本史探訪』, 6-10, 東京: 角川書店, 1984.
- 北野憲二, 『秀吉と信長の出會い』, 東京: 新人物往來社, 1983.
- 손중성, 「임진왜란시 분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1992.
-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 서울: 한울, 2001.
- 윤운상, 「임진왜란기 강화 교섭에 관한 연구: 조선 분할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1991, 26쪽.
- 李焜錫, 『壬辰戰亂史』, 上, 下, 서울: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67.
- 李焜錫, 『壬辰戰亂史』, [증보개정판], 上, 中, 下, 서울: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7.
- 이완범, 『삼팔선 획정의 진실』, 서울: 지식산업사, 2001.
- 이종만, 「조선의 분할안을 위요한 열강국의 외교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1973.
- 이중국, 「신라 삼국 통일의 정치사적 재해석 당대중의 남북 분할 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1985, 720쪽.
- 日本外務省(編), 『日露交渉史』, 東京: 外務省 政務局, 1944.
- 鄭樸生, 「임진왜란 중의 明-日 講和 회담의 시말」, 四溟堂記念事業會(편), 『사명당 유정: 그 인간과 사상과 활동』, 서울: 지식산업사, 2000.
- 鄭樸生, 『明-日關係史の研究』, 東京: 雄山閣, 1985.

- 朝鮮總督府 (編), 『朝鮮史』 第4篇 第10卷,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7.
- 조중화, 『다시 쓰는 임진왜란사』, 서울: 학민사, 1996.
- 佐島顯子, 「壬辰倭亂講和の破綻をめぐって」, 『年譜朝鮮學』, 福岡: 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1994.
- 中村榮孝, 「文祿 慶長の役」, 『岩波講座 日本歴史』, 東京: 岩波書店, 1935.
-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中, 東京: 吉川弘文館, 1969.
- 최영희, 「임진왜란의 재조명」, 『국사관논총』 30,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1, 7~9쪽.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 허선도, 「임진왜란론: 올바르게 새로운 인식」, 『천관우선생활력기념한국사학논총』, 서울: 정음문화사, 1985.
- 허선도, 「임진왜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승패의 실상을 중심으로」, 『한국학』 31, 서울: 중앙대학교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84.
- 황원구, 「<明史> 「朝鮮傳」 譯註 (II)」, 『동방학지』 15, 1973.

주제어

임진왜란, 한반도 분할, 일본, 명나라, 조선, 선조, 유성룡, 심유경, 조선의 사회변동, 토요토미 히데요시